

리아호

표지 이야기:

구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10쪽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26쪽

춤출 수 있는 자유, 32쪽

하늘 문을 열고,
39, 40, 친8쪽





“성찬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성스러운
성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구주와 그분의 희생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찬-희생 제물”,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 조셉 비 워킨,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쿠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생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자: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카스텐, 멜빈 래넷,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롬니, 제니퍼 로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밴덴버그, 줄리 워델, 캄벌리 헬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브리트니 존스 린,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 493호, 제 44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운환

편집인: 박승호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자부과 변경된 주소와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스모니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심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07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10 성찬-희생 제물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 8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데니스 엘 맥대니얼
- 10 복음 고전: 성찬-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5 신약전서로부터의 교훈: 회개의 기쁨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 26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텅기 장로
- 36 한 사람의 모범 브루스 시 하펜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시 앨리스 포크너 제 이들도 살아 있습니다 브렌다 헌트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로저 비 울스틴홀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 48 애독자 편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반에서 공과를 가르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찬-희생 제물**”, 10쪽: 가족에게 눈을 감게 한 후, 각자 자신의 침례와 성찬 들기, 구주의 생애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게 한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의식을 잃었을 때 깨달았던 교훈에 대해 얘기한 후, 가족에게 어떻게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 주는지 설명한다. 성찬을 취하는 동안 구주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열한다.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26쪽: 가족에게 앞으로 20년 후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리게 한 후, 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그들의 행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얼 시 텅기 장로의 권고를 읽는다.

“**출출 수 있는 자유**”, 32쪽: 가족에게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적게 한다. 그들의 목표를 실현시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게 한다. 마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선택을 읽고 토론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로운 태도와 행동이



표지

앞: 어찌하여 우느냐, 시몬 두이, 복사 금지.
뒤: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친구들 표지

삽화: 폴 만.



복사 금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침례 요한, 델 파슨

1829년 5월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근처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다. 침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교리와 성약 13:1)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정의반 반지를 찾으시면서
왜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7 포스터: 온 세상의 구주
- 18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폴 밴덴버그
- 22 질의 응답: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32 춤출 수 있는 자유 아담 시 올슨
- 39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십일조 및 기타 헌금
- 40 하늘 문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18 케이프타운의 신기록을 세운 소년단원



32 춤출 수 있는 자유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그분은 살아 계시대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피아노 연주
- 친8 하나님의 법을 배움 패트리샤 알 존슨
- 친10 친구 사귀기: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틴에 사는 클라라 크리스텐슨
멜빈 리빗
- 친13 노래: 한 천사 조셉에게 와
안나 존슨과 에이 로렌스 리온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어머니의 영향력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 친16 색칠하기



친10 친구 사귀기: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틴에 사는 클라라 크리스텐슨

중요함을 강조한다.

“하늘 문”, 40쪽: 가족에게 감상적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들이 왜 가치가 있는지 얘기를 나누게 한다. 네 명의 인도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바치는 십일조는 주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인도에서의 예배당 헌납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충실한 십일조를 바친 후의 약속에 대한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의

말씀을 읽고 토론한다.

“어머니의 영향력”, 친14: 가족 한 명에게 그림을 보여 준다. 어머니가 가족 한명 한명을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침례 받게 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인도했는지 얘기해 준다. 어머니의 영향을 생각하면서 가족에게 어머니를 위한 카드를 만들게 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친6
가정 복음 교육, 6	신앙, 40
가족, 26	십일조, 2, 39, 40, 친8
결혼, 2, 26	어머니, 친14
교육, 26	예수 그리스도, 7, 8, 15, 친2, 친4
금식 헌금, 39	우정 증진, 22
기도, 2, 10, 22	음악, 친13
물문경, 18	이혼, 2
방문 교육, 25	자기 수련, 32
봉사, 18, 25	자유, 32
부름, 26	재정, 26, 39
부활, 10, 45, 친4	조셉 스미스, 친13
선교 사업, 8, 18, 36, 46, 친10	준비, 26, 32, 친6
성신, 10, 15, 36, 46	초등학교, 친4
성찬, 10	침례, 8, 44, 친10, 친14
소년단 활동, 18	표준, 22
속죄, 7, 8, 15, 45	하나님에 대한 의무, 18
순결, 8	회개, 10, 15
순종, 32, 36, 40	희생, 10, 40, 친8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오래 전, 변호사 개업을 했을 당시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어느 부인과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제 견해로 그 이혼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 부인을 만났는데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에는 외로움과 낙담 때문에 변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후 바로 부인은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보람도 기쁨이 없어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과 같은 말 때문에 나는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혼은 나의 결혼 생활만큼이나 좋지 못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그런 경우에 처해진다면,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전 이혼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견 더 나빠요.”

통계상으로는 이혼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여성들의 약 절반이 생애 중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혼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증가하는 이혼율이 감소하지 않는 한, 많은 결혼 생활이 비극적인 결말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혼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혼의 “타당한 명분”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지속되는 일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혼은 인간의 삶을 망치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시킵니다. 흔히 이혼하는 당사자들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혼으로 겪게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비극을 겪고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 우리는 좀 더 큰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한 사람들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인생에서의 성취와 행복에 관해 희망하고 추구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풍성한 결혼 생활의 행복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깨지기 쉽고 수명이 짧은 것일까요? 왜 무죄한 많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 아파야만 할까요?

행복감과 큰 희망으로 시작됐던 이들의 결혼 생활에는 이를 풍성하게 해 주기 위한 어떤 요소가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 매튜 라이머, 포사틴 및 제이, 오렌주; 사진 촬영: BUSAITH PHOTOGRAPHY

빠져 있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질문을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의 한 평생 인생 문제들을 다루면서 보낸 저로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이혼 및 가정 파탄의 문제들에 대해선 다소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랑하는 아내 룯 덕분에 참된 행복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풍성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

결혼 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복잡하고도 힘든 문제의 간단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만한 많은 이유 가운데는 이기심, 미숙함, 약속 불이행, 의사 소통의 문제, 불성실함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 분명하진 않지만 결혼 생활의 실패는 그 모든 이유들에 앞서 얽혀 있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해 주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 생활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훌륭하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것, 이것이 없으면 고되고 힘들고 지루하게 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함

여러분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우정과 신뢰와 고결함으로,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살피고 지지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구축합니다. 아담은 이브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세기 2:23) 이미 결혼했거나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 “한 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질문해 볼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자신의 소망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의 필요 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나의 배우자에게 한 약속을 다른 어떤 관심사보다 충실하게 지키는가?

셋째, 나의 배우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가?

넷째, 나는 나의 배우자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는가?

다섯째, 우리는 돈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가? 돈 자체가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은 종종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여섯째, 우리 사이에는 영적으로 성결하게 해 주는 유대감이 있는가?

풍요의 다리를 구축함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열쇠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 방안.

기도. 결혼 관계는 훌륭한 의사 소통으로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면 많은 차이점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차이점을 강조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차이점은 있게 마련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일이 재미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차이점이 결혼 생활에 감칠맛을 더하는 약간의 소금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짓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어루만지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아름다워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은 적절한 때에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 또한 훌륭한 의사 소통의 형태입니다.

신뢰.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호간의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데에 불성실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간음은 어떤 변명에 의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괴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가족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잊을 만한 큰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잘못을 범한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을 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려자에게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충실해야 합니다. 남녀간의 불장난은 언제나 해악을 가져오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 대해 질투심을 느껴서는 안 되므로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의심스런 접촉을 피함으로써 악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절. 정절이란 흔들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접착제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

하나님의 입재. 결혼 생활의 축복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진실로 거룩하고 영적인 결합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그의 희곡 “헨리 5세”에서 이사벨 여왕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시느니라.”(5막 2장 67~68행) 또한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가장 잘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요성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을 동반하고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결혼 생활을 성결하게 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질 때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는 신성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은 영적인 영양분 없이는 실패하게 됩니다.

십일조. 20여 년 동안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이혼을 막는 가장 훌륭한 보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영적인 발전기가 게으름을 피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계속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화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훌륭한 음악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음악은 바로 두 사람의 음성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결혼 생활은 상호간의 존경과 성숙, 이타심과 예의, 약속과 정직을 토대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입니다. 결혼 생활 및 부모의 역할에서 오는 행복은 다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 성과 여성을 진실로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인 면에서 함께
결합시키는 데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됨. 부부가 부모가 될 때 결혼 생활의 영은 크게 풍요로워지며 영적인 성장 과정도 더욱 강화됩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부부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아들은 성장하여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며, 딸은 성장하여 자신을 잇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될 때 사랑의 완전한 의미를 가장 잘 터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부부는 그들의 충실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상의 어떤 성소보다도 가장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려 깊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인 모든 결혼 생활과 가정,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결혼 생활과 가정이 풍요롭게 되고 축복 받기를 간구드립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 배우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두 가지 색깔의 점토를 가지고 각각 둥근 공 모양으로 빚는다. 서로 다른 색의 두 공은 결혼 배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두 공을 합쳐 하나로 만든다. 그런 후에 가족에게 두 가지 색깔을 분리시켜 보게 한다.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자문해 보아야 하는 파우스트 회장님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결혼 생활에서 단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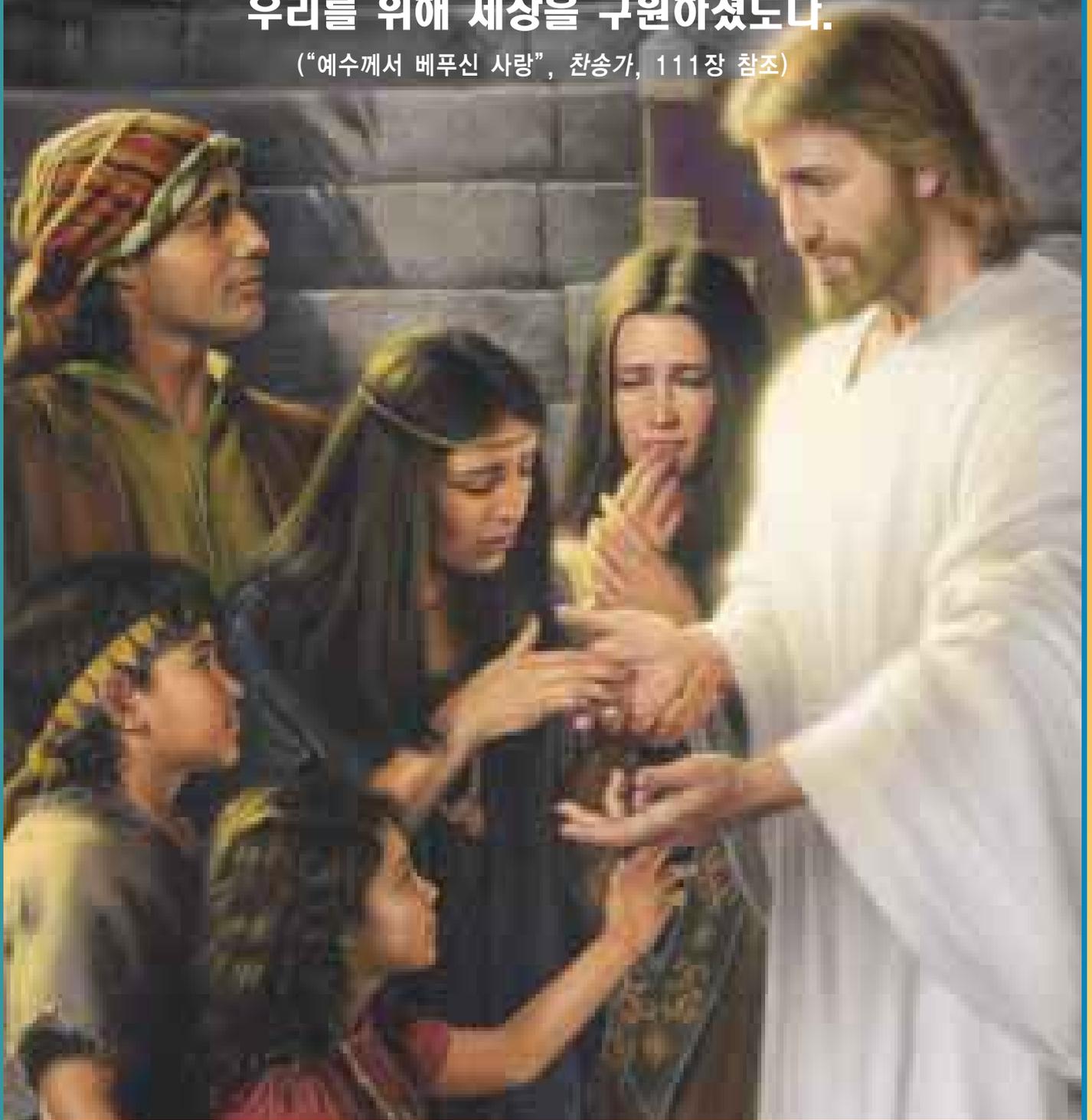
2. 가족을 원으로 둘러서게 한다. 돌아가면서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게 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면서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게 한다. 가족 한 명이 원을 이탈한다면 연결 고리가 끊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혼 생활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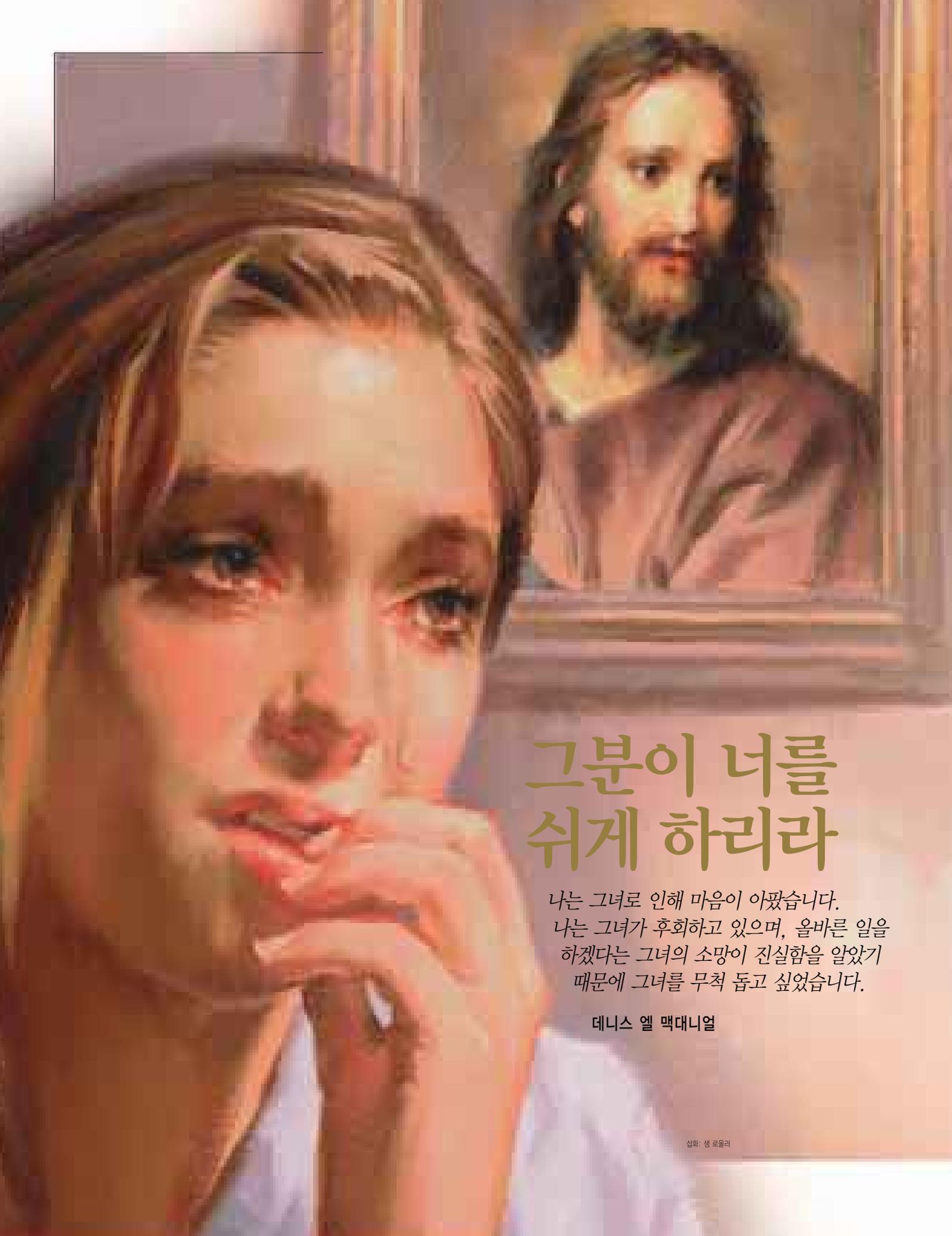
3. 식탁용 소금통을 하나 가져온다. 소금이 음식 맛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설명한다. 파우스트 회장님이 결혼 생활에서의 차이점을 약간의 소금에 비유한 문장을 읽고 서로의 차이점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부부를 가르칠 경우,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 왔는지 묻는다.

온 세상의 구주

우리를 위해 세상을 구원하셨도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참조)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그녀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녀가 후회하고 있으며,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그녀의 소망이 진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무척 돕고 싶었습니다.

데니스 엘 맥대니얼

수지(가명)를 처음 만났을 당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나와 함께 선교 본부에서 봉사하던 두 명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토론을 모두 공부하고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훌륭한 네 명의 가족, 즉 어머니, 아버지, 수지와 남동생을 접견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족 중 세 명의 침례 접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훌륭하게 준비했고 주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것에 가슴 설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들어온 수지는 말이 없었고 나를 만나기를 다소 주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수지가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물문경을 읽었으며 그 책이 참되다고 알고 있었고 이 교회야말로 지상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고 받아들였으며, 교회 회원이 되길 원했습니다. 나는 수지에게 십일조의 법과 지혜의 말씀 및 기타 계명을 기꺼이 실천하겠는지 질문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며, 남은 여생 동안 기꺼이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와의 접견은 그녀의 가족과 가졌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후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순결의 법의 의미를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이 그녀가 나를 만나기 주저했던 이유임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수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릎에 파묻고는 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수지는 계속 흐느끼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수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얼굴을 들고 선교사들과 만나기 몇 주 전에 주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나쁜 일이라고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일을 남자 친구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자 친구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얘기했고, 다시는 그런 관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자 친구도 선교사와 만나 이제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듣도록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녀가 후회하고

있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침례를 받겠다는 소망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무척 돕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게 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죄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속죄에 대해 말하고 그녀의 삶에 속죄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하며 위로했습니다. 나는 침례와 확인의 한 가지 목적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의식의 여지 없이 그녀가 진실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접견을 마쳤습니다. 예전에 했던 어떠한 접견 중에 느꼈던 것보다 주님의 영이 더욱 강하게 임했습니다.

나는 침례식 직전에 동반자와 함께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시작하기 전에 수지와 그 가족에게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래와 말씀 후에 그들은 어머니를 시작으로 아버지, 남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침례탕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통해 주님의 치유의 유행이 그녀의 마음에 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그녀의 눈에, 그리고 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더 환하게 웃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구주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우리는 침례 의식 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왕국의 새 회원이 된 가족을 환영했습니다. 수지와 약속하면서 나는 이 경험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동안 살아오면서 회개해 왔었고 속죄의 권능도 느꼈었지만, 그녀와의 경험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속죄의 권능을 느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많은 새로운 회원들의 경우처럼 수지에게는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도전을 극복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 훌륭한 하나님의 딸을 개종과 영혼의 치유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속죄는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선교사에게 자신의 삶에서 속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



성찬- 희생 제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1906년 9월 2일, 아이다호 주 오콜리에서 헥터 시 헤이트와 클라라 터틀 헤이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헤이트 장로는 1930년 9월 4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비 올슨과 결혼했으며,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소매 영업 분야에서 성공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팰로우 앨토우의 시장으로 봉사했으며, 스코틀랜드 선교부를 감리했던 그는 1976년 1월 8일에 사도로 성임되었고, 2004년 7월 31일,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년~2004년)
십이사도 정원회

6 개월 전 4월 연차 대회 때 저는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면제 받았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지금 저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그 밖의 훌륭한 동료들과 친구들의 축복과 위로와 즉각적인 도움에 대해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아내 루비와 제 가족에게 관심을 쏟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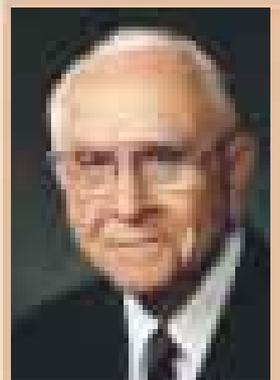
건강이 아주 위태롭던 그날 저녁에 저는 아주 중대한 일이 제게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사건은 너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고 사랑하는 아내 루비는 의사와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으며, 저는 무릎을 꿇고 목욕탕 욕조에 기대어 위안과 도움을 구하면서 고통이 경감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의식을 잃었고, 여러 날 동안 혼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저는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운 곳에 있었으며, 모든 것이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멀리 언덕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중 한 분은 다른 분보다 높이 서 계셨습니다. 자세한 모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은 제가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거룩한 분의 면전과 분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시간과 날들이 지나는 동안 인자의 영원한 사명과 승영하신 상태에 관한 느낌이 거듭 제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며 모든 인류의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그림: 월터 러빈, 평안을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복음 14:27,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제공, 못 사진 촬영: 에투 리아어.



7 **곳 동산에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구속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진리를 예전에 알았으며, 결코 의심하거나 의아해 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과 영혼에 감동을 준 영으로 인해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신성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침례와 가르침, 병자와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 조롱 받으시며 재판 받으신 일,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등 구주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성역의 전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경전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설명을 확인시켜 주는 구주의 초기 성역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해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주님이 배반 당하시던 날 저녁에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후, 주님께서 다가오는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만찬인 성찬에 대해 가르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도들 개개인에 대한 구주의 놀라운 사랑이 제게는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각 사도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 주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 한 사람이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등 상세한 부분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사려 깊은 관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떠날 것을 설명하시고 곧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열한 명의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세와 권능의 근원이시며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근원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3~5)

구주께서는 그분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여 세상 중에서 부름 받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구주 자신]을 믿는 사람들”(요한복음 17:20)을 위해서도 간구하셨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예수님과 열한 명의 사도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동산에서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누가는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뇌가 너무도 커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누가복음 22:44)고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짐과 고뇌로 고통 받으셨으며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구주는 사탄의 모든 권능을 이기셨습니다.

영광에 오르신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

“...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

“그런즉 내가 네게 거듭 명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나의 전능한 권세로 내가 너를 낮출까 염려하노라. 또 너는 네 죄를 고백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말한 이러한 형벌을 내가 겪을까 하노니”(교리와 성약 19:15~16, 18, 20)

의식을 잃었던 며칠 동안 저는 성신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에 대해 좀 더 완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주의 이름으로 하늘 왕국의 신비를 풀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해 좀 더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배반에 관한 사건과 조롱의 시련, 신회의 한 분이신 바로 그분의 육신에 가해지는 채찍질 등에 관해서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쇠약해진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았으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면서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두 발과 두 손 그리고 손목에 못질을 당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겪으신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창세 이전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만물보다 높게 들리우시기 위해 기록된 바대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므로써 만물 아래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며 그분의 육신은 무덤에 누어졌습니다. 인류의 구주로 선택된 예수님의 불멸의 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이 세상에서 각기 의로움의 정도가 달랐던 수많은 영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굴레에서 구제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너무도 영광스런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은 인간 가족을 위하여 구주께 예임된 특별한 사업의 일부였습니다.”¹

저는 이러한 장면들이 제 영혼에 확신을 준 그 깊은 영향력을 여러분께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의 영원한 의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계획 중 중요성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인 속죄를 위한 주님의 희생에 비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선포된 바 복음과 그 이외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²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성

찬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성스러운 성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구주와 그분의
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

“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는 육체를 따라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영의 권능으로 그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일어날 자의 첫째가 되사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그런즉 그는 하나님께 첫열매니, 그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이라. 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후서
2:6~9)

성찬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성스러운 성찬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구주와 그분의 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고린도전서 11:27~30 참조)

우리 구주께서도 친히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십이라.”(제3니파이
18:29)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끝까지
충실할진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고
계시하셨으며, 그 계획에는 구주의 속죄 희생에
항상 기억시키는 것으로서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20:7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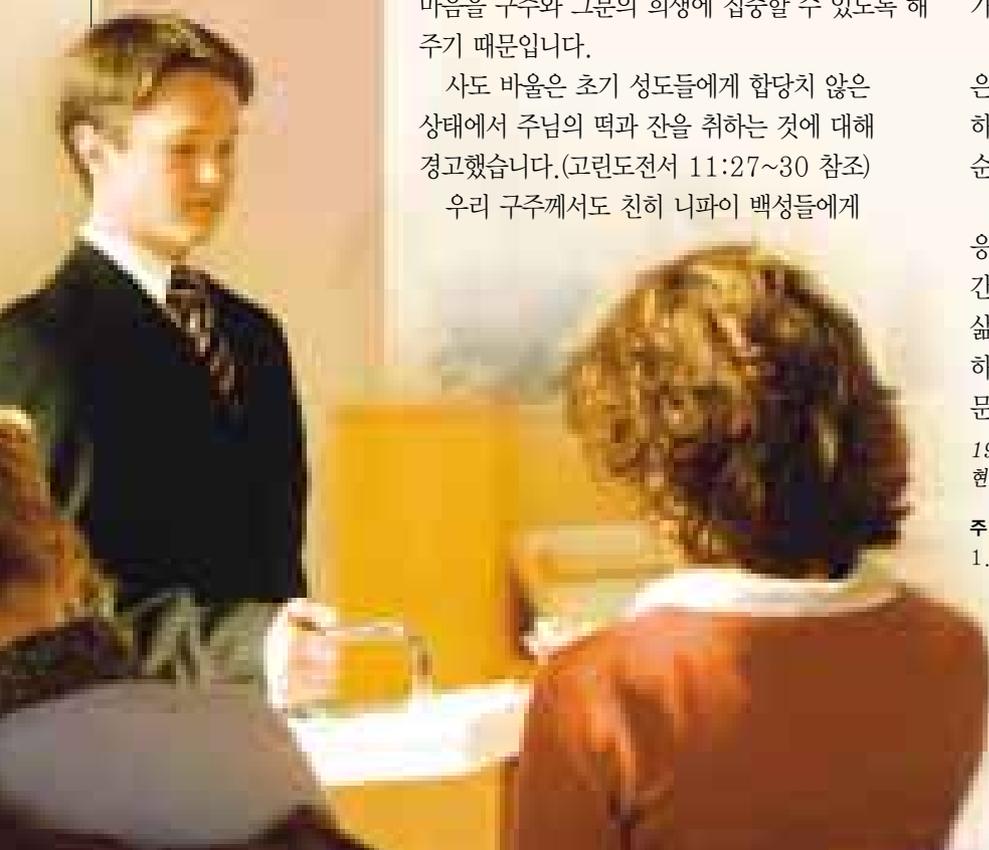
불멸은 의로운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주님의 복음에 따른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간구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알게 된 지식은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원한 기쁨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재산입니다. ■

1989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대문자 사용 및 구두점을
현대화 함.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71쪽.
2. 브루스 알 맥콩기, *Mormon Doctrine*, 2판 (1966년), 60쪽.





교훈

회개의 기쁨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 상의 성역을 통하여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 특히 죄인에
대한 지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및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타락한 자나 길 잃은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과 그들이
돌아올 때의 기쁨(누가복음 15장 참조)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예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7)

저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큰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회개 과정을 도울 때 우리가 받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나.”

기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족감이나
즐거움 느낌보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나 “영원한 기쁨”(니파이후서 8:11)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속죄의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속되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확신을 얻음으로써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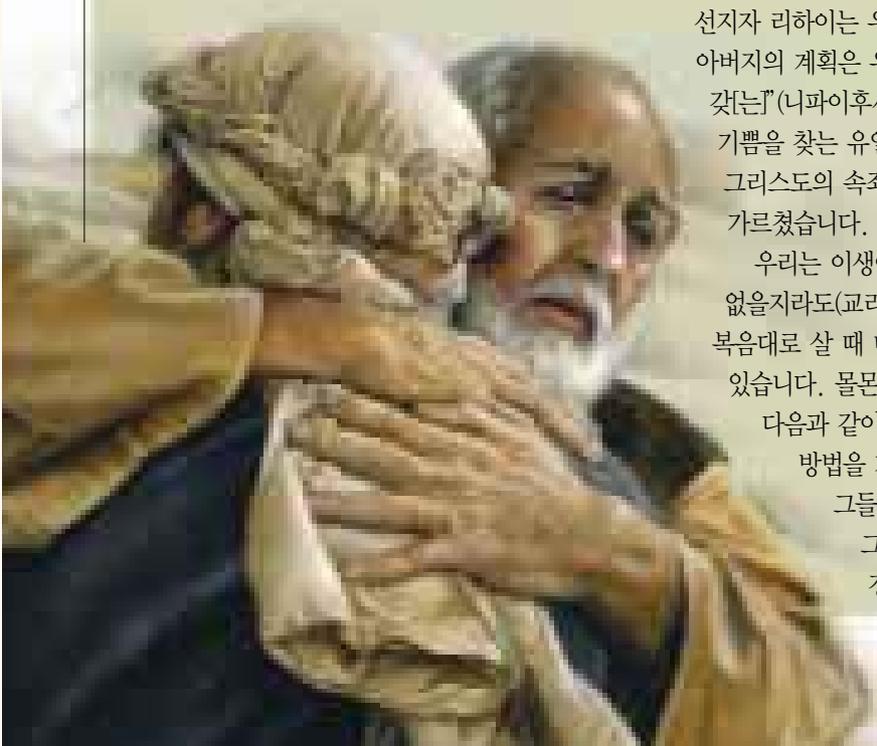
선지자 리하이이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가 “기쁨을
갖[는]”(니파이후서 2:25) 것이며, 영원한
기쁨을 찾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생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복음대로 살 때 매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문은 충실한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기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행복은 죄를 회개하고
영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서 옵니다.

그림: 리조 페인 스텐달, 탕자, FOUNDATION ARTS, 북서 권지



권유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맞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

“또한 이제 보라, 내 아들이,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엘마서 36:24~25)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속죄 희생을 적용할 때마다 구주께서 느끼실 성취감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구주께서 느끼셨던 바를 다음과 같은 말로 확실하게 반복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한3서 1:4)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교리와 성약 18:13)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그분의 속죄와 그분 앞에 흠 없이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분께서 느끼셨던 바를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 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이 세대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그리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제3니파이 27:30~31)

저는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이생에서 기쁨을 찾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히브리서 12:2: 기울임꼴로 강조 표시가 추가됨) ■

회개하는 영혼의 기쁨

우리는 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나 엘마 이세의 경험을 공부함으로써 참된 회개에 따르는 기쁨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8:1~3; 9:1~31; 모사이야서 27:8~31; 엘마서 36:5~24 참조) 바울과 엘마는 성도들을 박해하며 다녔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악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 하늘 사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났으며, 예수님은 친히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사도행전 9:4)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엘마는 말할 수가 없었고 바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비슷한 방법으로 사악하고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제게 시키실 일이 무엇이오니이까”(사도행전 9:6 *역주: 개혁 개정판에 없는 내용임) 그는 즉시 자신의 삶을 구주께로 돌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엘마는 자신의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엘마서 36:17~20)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최고 기록을 세운 케이프타운의 소년단원

그는 세 차례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된 남아프리카 역사상 세 번째의 소년단원이었으며, 또한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수상자이다.

폴 밴덴버그
교회 잡지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살든지, 소년단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상을 무려 세 번씩이나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상상해 보라. 로코 두 플레시스는 남아프리카 제일 에지미드 대의 26년 역사상 최초로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된 대원이다. 그러므로 세 차례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된 것은 대단한 성취이다.

그러나 로코가 작년에 받은, 그에게 똑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상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은 것은 제가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의 소년단원 프로그램은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파노라마 워드 회원인 로코는 말한다.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되는 것은 어렵다. 물론 소년단원 지도자들이 곁에서 도와 주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될 수 없어요.”라고 로코는 덧붙인다.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은 남아프리카의 소년단원 프로그램에서 각 진급 과정에서 주어지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계획, 그리고 노력이 요구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에 대해 로코는 부모님과 청년 지도자들의 지지가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달성해야 할 사항들 중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관건은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이 계명대로 잘 행하고 있다면 평범한 물몬으로서의 생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의 요구 사항들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청년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신권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되는 것

전국의 모든 소년단원 가운데 약 1~2퍼센트만이 남아프리카 소년단원의 최고상을 받는다. 그런 후 이 스프링북 소년단원들 가운데 단 1~2퍼센트만이 도전 가능한 세 개의 탐험가 과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성취한다. 로코는 이 모든 세 개의 과제들을 완수하면서 남아프리카에서 이런 쾌거를 달성한 세 번째의 소년단원이 되었다.

남아프리카 소년단원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급하게 되는데, 개척자에서 모험가로, 그리고 일등급을 거쳐 탐험가까지 진급하게 된다. 탐험가 배지는 육상 소년단원, 항공 소년단원, 해양 소년단원의 각기 다른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소년단원은 이 영역들 가운데 초점을 맞출 하나를 선택하고 최종 진급 단계인 스프링북 소년단원이 되려고 노력한다. 로코는 이 세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배지들 및 달성 항목들과 더불어 각 유형의 탐험가에는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특정한 배지들이 있다. 육상 탐험가는





로코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맞은편 쪽: 어머니인 샬리, 아버지 안드레, 그의 동생 진 잭과 함께. 왼쪽 맨 아래: 로코는 스포링북 소년단원상의 시험 항목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소년단원 그룹을 이끌며 삼 일간의 하이킹을 했다. 오른쪽 맨 아래: 케이프타운의 후기 성도들이 운영하는 시더버그 사격장에서 사격 중인 로코.





오른쪽 위: 항공 탐험가의 시험 항목 중 일부로서, 로코는 시더버그 광야를 비행하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오른쪽: 로코는 10명의 대원을 이끄는 공동 지도자가 되어, 시더산을 하이킹했다. 맨 오른쪽: 대원들은 연례 경기를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 아래: 대원들이 로코가 설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맞은편 쪽: 로코가 모형 다리와 하이킹 일지를 들고 있다.



백우드맨(미개척 지역에서의 생존 능력을 가진 사람)배지와 맵핑(지도 판독 능력) 배지를 받는다. 항공 탐험가는 항공 조종사와 항공 교통 관제사 배지를 받는다. 그리고 해양 탐험가는 항해와 노젓기에 관련된 항해사 배지와 선원 배지를 받는다.

로코는 각각의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약 2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먼저 기술을 뒷받침하는 이론에 관련된 흰 배지들이 있다. 그런 후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는 초록색 배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개척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의 배지를 받으려면, 먼저 광야에서의 생존, 별자리로 길 찾기, 성냥 없이 불지피기와 같은 것들을 배운다. 그런 후에 실제적인 적용을 해 보는 것이다. 소년단원은 48시간 동안 척박한 오지에 홀로 남겨지게 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로코는 소년단원 활동을 하느라 몇 년째 계속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그는 많은 주말을 집 밖에서 보냈다. “배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로코는 대대의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대대의 모든 야영 활동들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을 맡아 왔다. 즉 식사를 계획하고, 장을 보고, 대대의 모임을 조정하고, 다른 소년단원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서명해야 할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각 야영 활동을 두루 관리해야 했다.

로코가 그 과정에서 배운 귀중한 자질은 인내심이다. “제가 받은 배지 중의 절반 이상은 한번에 패스하지 못했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6개월 내에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이미 배지를 받은 성인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면, 구급법의 시험 항목 중 하나는 붓대 감기이다. “제 붓대에 있던 한 매듭의 일부가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2급 응급 구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붓대 감기

부분을 다시 반복해야 했어요.”라고 로코는 말한다.

배지를 획득하는 것 이외에도, 스프링북 소년단원상을 받기 위해 대원이 완수해야만 하는 다른 과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건설 과제이다. 로코는 다리 만들기를 선택했다. 그는 먼저 설계를 하고, 다리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 후 그는 다른 여섯 명의 대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약 20피트(6m) 높이에 30피트(9m) 길이의 실제 크기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다리를 만든 후 그것을 해체하는 데까지 거의 9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지역 사회 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스프링북 소년단원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모두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스프링북 소년단원의 봉사 항목으로 로코는 마흔 집 이상의 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집안일과 수리를 도왔다. “유일하게 중복된 중요 과제는 40시간의 봉사 과제였어요. 소년단원상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모두에 적용할 수 있었죠.”라고 로코는 말한다.

다양한 상을 받기 위해 로코가 이행한 모든 의무 항목들 중에서 그는 특별히 개인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가지를 꼽는다. “몰몬경 읽기예요. 그것은 세계 가장 크고 가장 보람 있는 도전이었어요.”라고 로코는 주저없이 말한다.

선교사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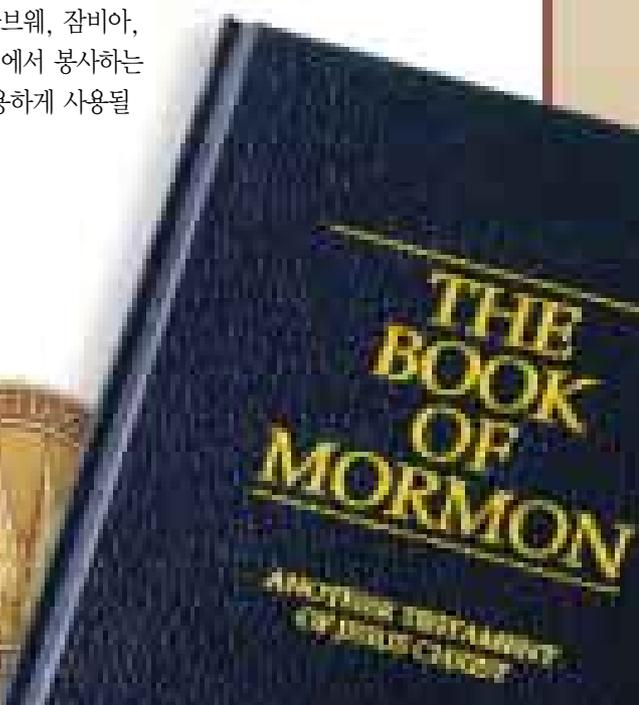
“저는 일 년 전 쯤에 이미 몰몬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완독하기 위해 읽고 있어요.” 로코는 설명한다.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로 책에 대한 간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몰몬경을 두 번째 읽는 동안에는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은 매번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로코는 이미 중요한 다음 과제를 시작했다. 바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면서 그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년단원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획득은 그가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선교사가 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몰몬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고,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두 번째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이 아니었더라도, 로코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요건들을 이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에 참석하고, 경전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원래 로코의 모습의 일부일 뿐이며, 후기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의 일부일 뿐이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지금, 두 플레시스 장로가 쌓아 온 간증은 그가 스프링북 소년단원 건축 과제를 위해 쌓았던 줄과 통나무로 만든 다리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소년단원으로서 배운 백우드맨(미개척 지역에서의 생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부 기술들은 짐바브웨, 잠비아, 그리고 말라위에서 봉사하는 동안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



질문의 응답

교회 회원인 제 친구는 복음의 표준을 일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여러분은 그와 친구가 됨으로써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 어울릴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함께 이야기하고, 좋은 활동들에 함께 참여하고, 모범으로 삼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독선적이거나 비판적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표준대로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찾으세요.

표준을 높게 유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친구를 돕는다는 구실로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성신의 속삭임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의 우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친구는 계속 그릇된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표준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를 도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단순히 그의 변화만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친구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신이 알려 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후 행동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친구의 삶에 변화가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친구를 훌륭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서 그가 영을 느끼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지 모범을 보여 주세요.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후 행동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는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모범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경의 선지자 야곱은 아들 이노스가 그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노스는 기억했습니다. “부친이 하시던 말씀이 스며들었”(이노소서 1:3~5 참조)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모범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훗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하세요. 아흔아홉 마리의 양 떼를 남겨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던 목자에 관한 구주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함께 데려왔습니다.(누가복음 15:4~7 참조)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의 활동에 여러분의 친구를 초대하세요. 이 경험들은 그가 의로운 삶에서 오는 축복들을 보고,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느끼는 행복들이 불순종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낫다는 것을 그가 인식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여러분의 친구를 도우려 노력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도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친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니파이가 그의 백성들을 도우러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가 능하게 하리라” (힐라맨서 10:5)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때, 여러분을 그분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계속 친구가 되어 주세요. 친구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지 그는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모를 뿐이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때로는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릴 것입니다.

스테파니 시, 16세, 미국

제게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적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늘 혼자 왔습니다. 저는 그의 힘과 용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강한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혼자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에 제가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말해 주었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그는 성찬식에 왔고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충실히 살으셔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리나 브이, 18세, 스웨덴



저는 그와 얘기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세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게도 그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해외 왕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에이치, 17세, 일본



여러분은 친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청소년 활동에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표준대로 살면서 받았던 것에 대한 간증을 친구와

나누세요.

자렛 큐, 16세, 필리핀

세계도 교회의 몇 가지 표준을 따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따라 표준을 낮추지 않는 한, 계속 그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심각한 문제라면 감독님께 말씀 드리세요.

데보라 에스, 14세, 미국

저는 제 친구와 함께 복음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재미있고 건전한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세상의 죄악에 가담하게 하려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킬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생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며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젊은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베풀어 주게 될 그 축복은 참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회 회장단 제1보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98쪽.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제 모범을 통해 그에게 권고하고 그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려 주며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이더서 12:27참조)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그 친구이지만 여러분이 결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친구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은 강해져야 합니다.

조지 비, 17세, 에콰도르



이런 상황에서 모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씨, 17세, 우르과이

상기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도덕 교사였지만 구주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변을 보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 및 지방부) 명칭, 사진을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여러분의 사진 인쇄에 대한 부모님의 허가서 포함)

Questions & Answers 5/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dlschurch.org

2007년 5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필요한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염려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 가난한 자,
특히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해
하나님과 의로운 자들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26쪽)

마태복음 25:37~40: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모사이아서 4:26: “...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결코 다시는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을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한 일은 기회이지
짐이 아닙니다. ... 모든 회원들은
구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어떠한 부름도 여분의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축복입니다. ... 각
부름은 성약의 백성이
됨으로써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입증해 주는
기회이며, 여러분이 책임을
맡기로 동의한 것에 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1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교회의
회원이든 다른 교회의 회원이든, 혹은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그가 찾게 되는 모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과부를
돌보고, 고아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상처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Times and
Seasons*, 1842년 3월 15일, 732쪽)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쓰고 기부하는 데 후하고
관대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Ensign*, 1997년
5월호, 77쪽)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는” (교리와 성약
104:17) 주님의 창고는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한 명의 여성입니다. 외로울지도
모를 자매의 말을 들어주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한 명의 자매입니다. 방문

교육을 하는 자매와 친밀한
우정을 키우는 것은 한
명의 자매입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복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원리”, BYU
여성 대회, 2003년 5월
1일, 3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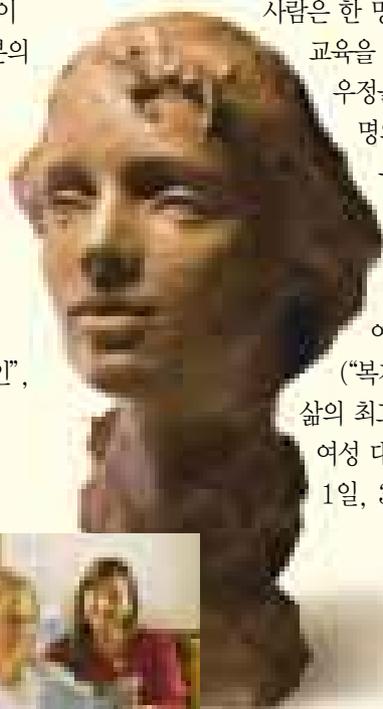


사진: 크레이그 데이몬드, 포시턴 및 제이, 심원 사진, 사진 촬영: 헬렌 시 멘디슨, 도널드 포지튼 촬영: 타루카 © ARTBEATS

청년 성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회장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살기에 합당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점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약속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시기에도 지금처럼 많은 선택과 성공의 기회들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십시오.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 준비하고 결혼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십시오

훌륭한 교육을 받을 때, 직장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항상 교회 활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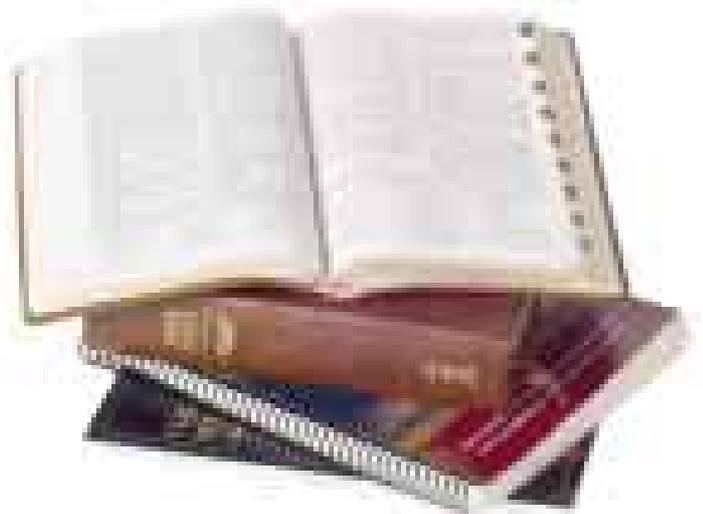
청년 독신 성인(이하 청년)들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자주 바뀝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여러분과의 연락이 끊길 때 매우 안타까우며 여러분에게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회원이 받는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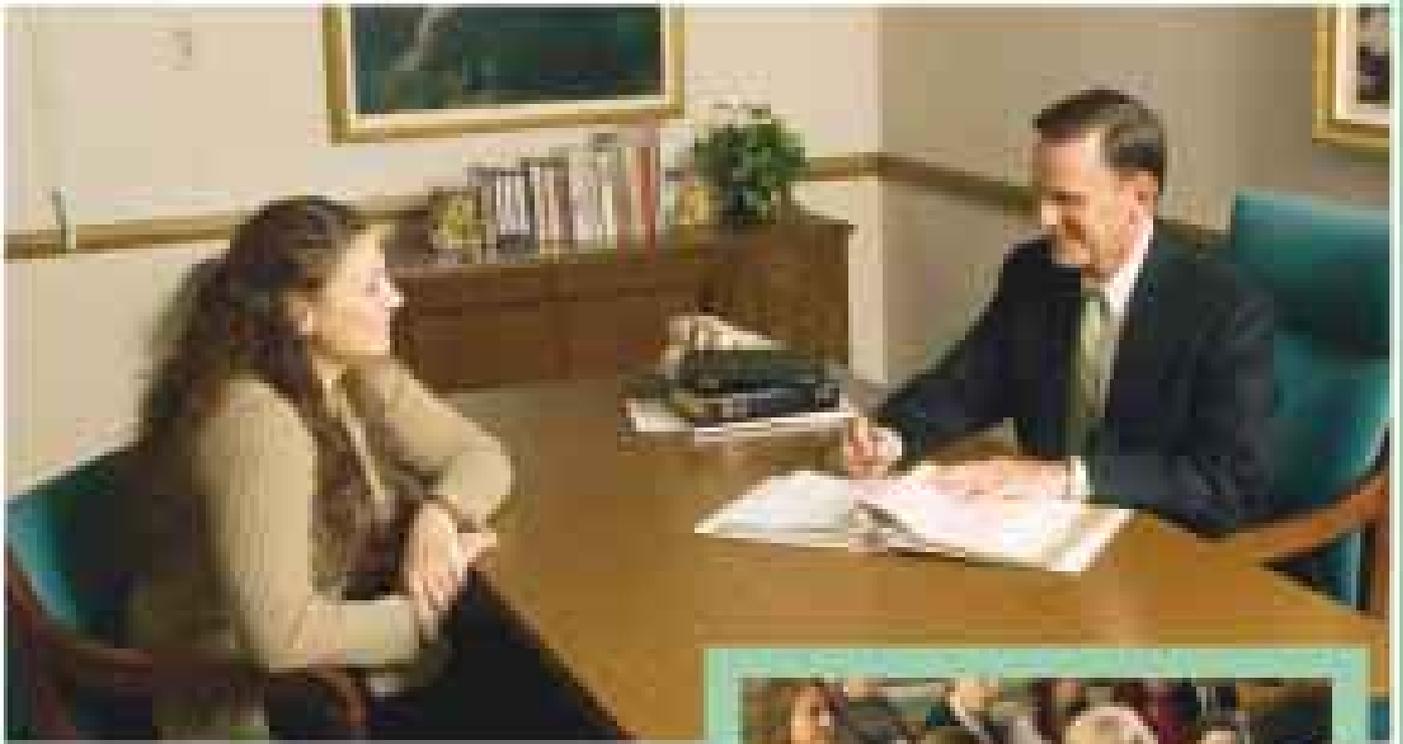
우리의 가장 큰 염려 가운데 하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 단위 조직에 정착하지 않아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신권 의식에 참여하고, 접견하고, 합당하다면 성전 추천서를 받고, 교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신권 열쇠를 소유한 이에게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명의 감독이 있다면 그것은 감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회원 기록이 현재 참석하는 와드에 없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들일 위치에 있지 않다면 지도자들은 곧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축복들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와드나 지부에 기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은 성장하는 교회에 필수적입니다. 귀환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다른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열정과 간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름은 역시 중요합니다.

아직 한 와드나 지부에 소속되지 않았고,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면, 그 문제를 즉시 바로잡기 위한 제 개인적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권 지도자에게 보고하십시오. 자매님들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알고 지내십시오. 상호부조회 조직에 참여하십시오. 젊은 형제님들은 더 커진 책임을 받아들이고 아론 신권에서 멜기세덱 신권으로 진급하는 과정의 일부인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에 합당해 지십시오. 지역 장로 정원회에 속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한 와드나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면 신권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복음 안에 정착하고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미래의 삶을 위해 오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대학생 연령의 학생들을 알고 지내 왔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교육, 직업, 결혼 준비 그리고 교회 활동에 관련해 내리는 결정들이 미래의 여러분의 삶의 유형을 결정한다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와드나 지부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살기에 합당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또 한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반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영원한 의미에서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의 봉사와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취직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는 데 필수적인 훌륭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권고합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고 여러분에게 가능한 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육을 마쳤을 때 질 수 있는

빛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희생한다는 면에서 여러분과 배우자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가족의 생계, 직장, 교육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혼이든 결혼을 했던 직장을 가진 여러분은 훌륭한 직업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생산적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기술을 극대화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충실하십시오. 발전과 승진의 기회를 구하십시오. 십일조와 헌금을 내십시오. 수입을 저축하고 근검과 자립의 습관을 키우십시오.

진정한 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단계에서 받게 되는 큰 도전들 중의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번 것을 저축하십시오. 어리석은 자 역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저축하고 자신에게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¹

우리 사회에는 유혹적이며 흥미로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은 매우 흥미롭고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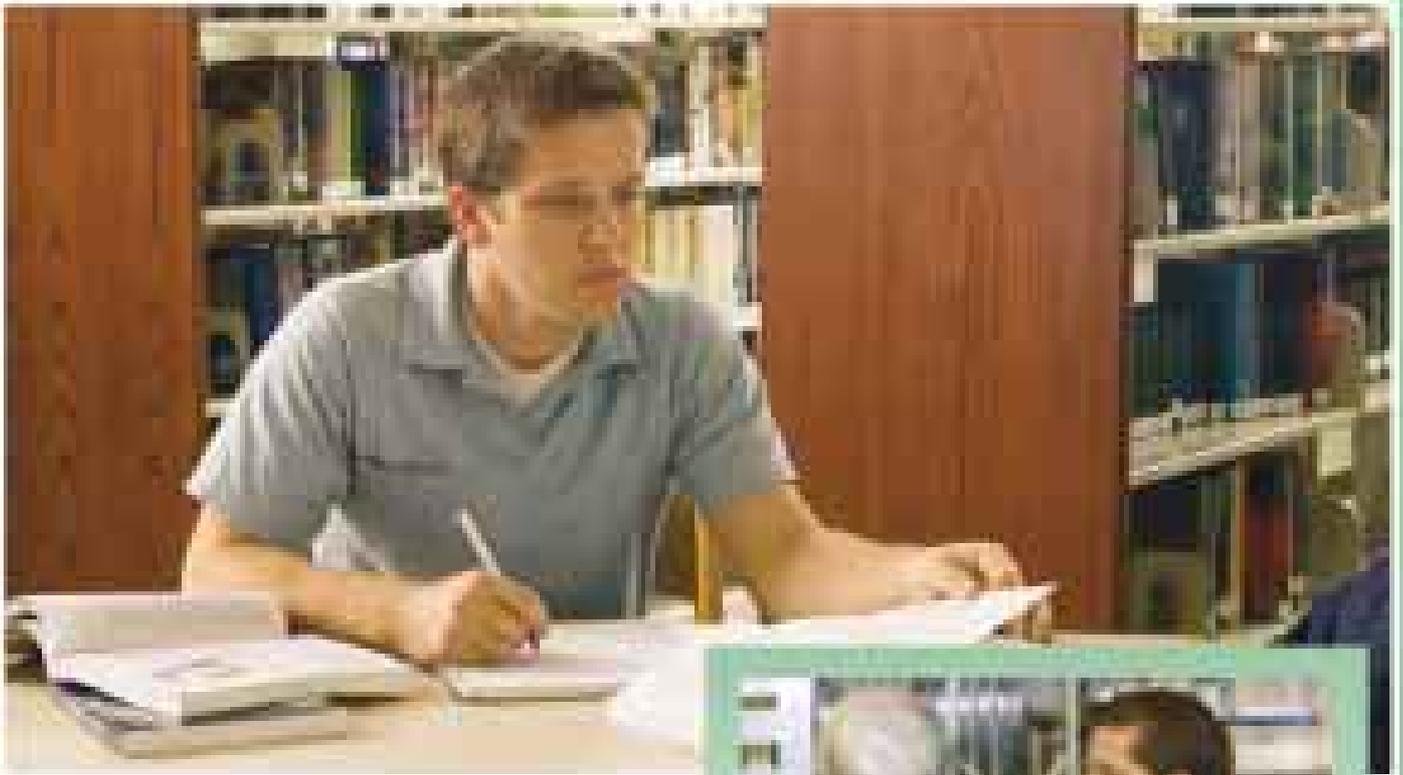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질적, 세속적인 놀릿감들로 자신의 주변을 채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독립할 때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이 현대식 집의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으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제가 법대를 마칠 무렵 불어나는 가족이 작은 아파트에 살던 때라고 개인적으로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사치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와 복음의 축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의 부족을 완전히 가려 주었습니다.

결혼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과 논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이전의 두 메시지와 연관되는—결혼의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은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깊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남자가 세상에서 아내를 맞이들이되,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그 남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아내와 언약하고

아내도 그와 언약하면, 그들의 언약과 결혼은 그들이 죽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효력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매여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계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니라.”(교리와 성약 132:15~16)

간단하고 쉽게 말해,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은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결혼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전들

이 경전 구절을 보면서 결혼을 지연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일부에서는 귀환 선교사들에게 결혼하라는 충분한 격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모든 귀환 선교사들은 귀환 후에 교회에 활동적이 되고 교육을 받으며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2.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이 일부 여성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품위 유지비”라는 표현은 종종 상대방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적절한 대화를 통해 모호한 점들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강조로 인해 결혼이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교육, 그리고 직업은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데도 가족 없이 직업만 추구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4.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재미있거나 이기적인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삶은 놀이 공원 이상의 것입니다. 부의 축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5. 방송 매체, 가족이나 친구들의 경험의 결과로 생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결혼을 왜 하지?” 다른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이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6.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룹니다. 멋진 생활을 유지할 만큼 돈이 충분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고,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 등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다른 많은 염려들이 결혼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하나 하나에 개개인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결혼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선언하며,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있어 전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을 갖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두려움

결혼을 미루는 대부분의 이유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를 고르라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준비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 사도들이 큰 폭풍에 그들의 배가 침몰될까 두려워했을 때 그리스도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마가복음 4:39~40)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세대에서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일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 성인들이 공부를 계속했다면 얻게 되었을지 모를 모든 편의를 뒤로하고 이미 제 세대 때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식과 영원한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 족은 다른 모든
관계와
결정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족에 관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미래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어볼 만 합니다.

가족

이제 네 자녀와 스물한 명의 손자손녀를 둔
팅기 자매와 저는 얼마 전에, 손녀들을 집에서
재웠습니다. 여섯 살에서 열네 살까지의 손녀 다섯
명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촌이자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Ting 자매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후 손녀들은 Ting 자매가 준비한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들을 한
후에 그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작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조부모에게 맞게 가사를 바꾼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 오실 때는
정말 기쁘요
손뼉치고 고함치고
무릎에 앉죠
[할아버지] 목에 팔 감고
꼭 껴안아요
볼을 어루만지고 뽀뽀해요.*²

다섯 명의 손녀들은 제 무릎에 앉아 이 노래를
부르며 제 목을 감싸 안고 볼을 어루만지며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적 소유와
돈이 드는 것들을 잊게 해 줍니다.

가족에 관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미래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은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관계와 결정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룻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는
남편을 잃었으나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과부였지만 가족과 하나님께 계속 헌신했습니다.

시아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의 길을 가도록
권했을 때 룻은 신앙을 키워주는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여러분이 아시듯, 후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모든
축복들은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복음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가족을
통해 우리는 영원으로 진보합니다. 영원한 결혼과
가족을 위한 모든 노력은 가치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에 대해 속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대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의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세와 영원을 위해 배우자에게 인봉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

2004년 5월 2일 유타 옥든 종교 교육원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말씀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 229쪽.
2. “아빠의 귀가”, 어린이 노래책, 110쪽.

꿈은 우익은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밤 레리나가 무대 위를 미끄러지듯이 지나간다. 발레리나가 너무도 쉽게 소용돌이 치듯 움직이고, 회전하고 공중으로 재빠르게 뛰어 올라 마치 그녀에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각각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를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많은 어린 소녀들처럼, 칠레의 마리아 빅토리아 로하스 리베라-친구들은 마비라고 부름-는 4살이었을 때 발레리나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다른 어린 소녀들처럼 마비는 무대 위에서 보았던 우아함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전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노력과 결심은 어린 공상가에게는 과분한 것들이었다.

꿈의 비용

마비는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 치러야 하는 희생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열 살 때 발레를 시작했을

규칙은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을 통해
마비는 높이 날아
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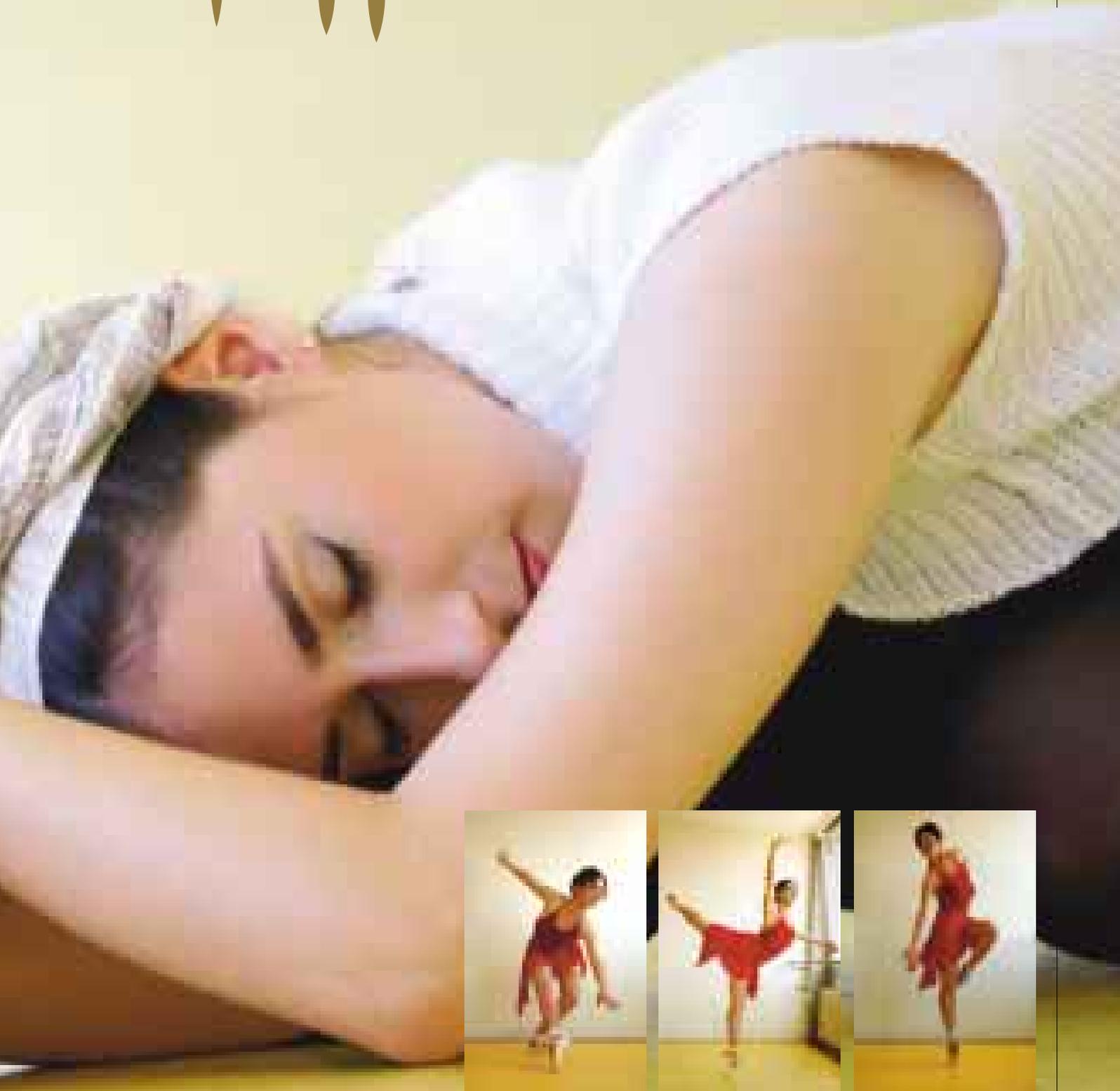
무렵 선생님들은 우리의 인생 중 절반을 춤추는 데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죠.”

그런 것들에는 자유 시간이나 일부 음식들도 포함된다. 마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운동과 연습에 쏟아야만 했다. 마비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학교와 발레 연습 후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많지 않았다.

마비는 자신의 꿈이 충분히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침대 시절은 참 복잡한 시절이지요.”라고 마비는 말한다. “제가 왜 어떤 것들은 먹지 않으며, 왜 늦게까지 자기들과 외출하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유





자유의 대가

마비는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마비는 “저는 늦게 귀가하지 않도록 했고, 친구들과 쇼핑 대신 무용 연습을 선택했어요.”라고 말한다. “너무 늦게 귀가해서 피곤하거나 연습을 하지 않아 스텝을 잊었다면 춤을 출 수가 없죠.”

그런 식의 수련은 쉽지 않지만 마비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마비는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수련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제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춤을 추기 위해 이러한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 한 가지

마비가 발레리나가 되려고 노력하던 중, 어느 순간에 마비는 춤이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그녀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외중에 마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는 소망을

가졌으며 발레 연습을 통해 깨달았던 것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춤을 위해 제한을 두었던 것들을 궁금해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제약을 주는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녀는 “저는 우리에게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이런 생활 방식에 따를 것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어요.”라고 말했다.

혹은 구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저]야 하는데, 즉 스스로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것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16:26 참조) 그러한 자기 수련은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가져다주며, 반면 계명에 어긋나게 살고자 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니파이후서 2:27)으로 인도된다.

마비는 “순종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말했다. “제 목표는 이 지상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희생할 가치가 있음

마비는 무대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움직인다.

스트레칭 하면서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물 흐르듯이 움직이며 *데벨로빠, 피루엣, 글리사드, 그랑 주떼*를 선보인다.

발레리나는 보통 사람들이 할 경우 매우 아프고 힘든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은 관객과 호흡하는 데 꼭 필요하다. 훌륭한 발레리나는 모든 동작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 무대 밖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8년 동안 거의 매일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한 결과 마비는 무대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녀의 꿈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발레가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죠.”라고 마비는 말한다. “하지만 동작들에는 엄청난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데에는 많은 힘이 들어가지요.”

복음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힘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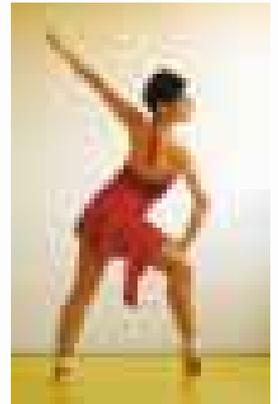
마비는 “수많은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제가 춤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강해 졌다는 느낌을 받으며, 제가 무대 위 혹은 아래에서 밟는 스텝마다 성신의 인도를 느낍니다.”

끝나지 않은 춤

니파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에 반드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니파이후서 31:19~20 참조) 마비에게 발레는 역시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파라과이에서의 활동 후, 마비는 몇 년간 가르치기 위해 칠레의 비냐 델 마르로 돌아왔다. 현재 마비는 그녀의 춤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마비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의 일환으로 다른 발레단에서 공부하고 오디션을 받기 위해 아르헨티나,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으로 떠났다.

마비는 무대 위에서, 또 복음 안에서 계속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춤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마비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면 그녀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고 가르치셨다. ■



지혜로운 춤

마비는 건강과 체형 유지를 위해 무대 밖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음식을 조심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마비는 연습을 많이 하며, 매일 5시간 이상씩 춤을 춘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무용수란 이유만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아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제 몸이 제 영을 위한 성전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저는 제 몸의 부분들이 제대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제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축복에 대한 마비의 간증은 발레를 통한 경험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다룬다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은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비는 “무용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몸이 주어진 것은 그에 따르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모범



아내, 어머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 여성의
모범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최 근에 받은 “웬디 냅의 장례식”이란 제목의 이메일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40여년 전 어느 날, 선교사였던 저와 동반자가 프랑크푸르트 기차역 안에 있는 꽃가게 근처에서 웬디와 폴 냅을 만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에 병역 의무로 온 젊은 그 미국인 부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첫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부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면서, 저는 웬디의 영혼 안에 있는 빛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명랑했고 밝았으며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녀는 회복의 의미를 직감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간증이 자라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 빛이 밝아지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30여년 후에, 웬디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조셉 스미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졌던 느낌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침실 만한 작은 독일 아파트 2층에서 선교사님들을 마주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게 떠올라요. 그리고

놀라움과 안도를 느꼈던 것을 기억해요. 전 항상 어딘가에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느꼈었어요. 우리가 그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이 장님처럼 비틀거리며 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 그건 정말 옳게 느껴졌고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도록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웬디와 폴은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 누가 신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회 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방문을 한번 남기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는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최근 개인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10~11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눈에 띄었던 경전 구절을 그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기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 ... 성신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00:6, 8)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화평의 영을 느꼈습니다. 수년 후 웬디는 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음에 리비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점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웬디가 보인 개인적인 모범의 힘이었습니다. 처음엔 웬디 자체가 리비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전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빛, 즉 성신은 다시 돌아왔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참되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일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과 웬디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곧 그들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가정 생활의 일상적인 시련들 속에서 그들은 다섯 자녀들을 키웠고, 그들은 모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몇몇은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폴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폴과 웬디는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이중창을 불렀습니다. 웬디는 수년 동안 와드 합창단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고 그들 스스로 “성도들의 기쁨”(이노스 1:3)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런던에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제 아내 마리와 저는 메인 주에서 온 리비 카사스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메인 주에서 우리가 알았던 유일한 사람들은 뉘 부부였으므로 우리는 그녀가 혹시 그들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알다마다요. 웬디는 제 절친한 친구예요. 그녀는 제가 복음을 알게 해주었어요.” 웬디와 리비, 이 두 어머니들은

선

교 사업에
대해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래방에서 가족을 위한 빨래를 하던 도중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차역에서 웬디와 그랬던 것처럼 웬디는 리비와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리비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점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웬디가 보여준 개인적인 모범의 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웬디 자체가 리비에게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 넵 가족은 오리건 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웬디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후, 우리는 연차 대회 기간 동안 그들이 유타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디의 남편과 그들의 귀환 선교사 아들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부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그들과 그들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폴과 웬디는 함께 선교 사업을 하는 꿈을 이루고자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웬디는 저에게 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저는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그녀는 복음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후, “주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라고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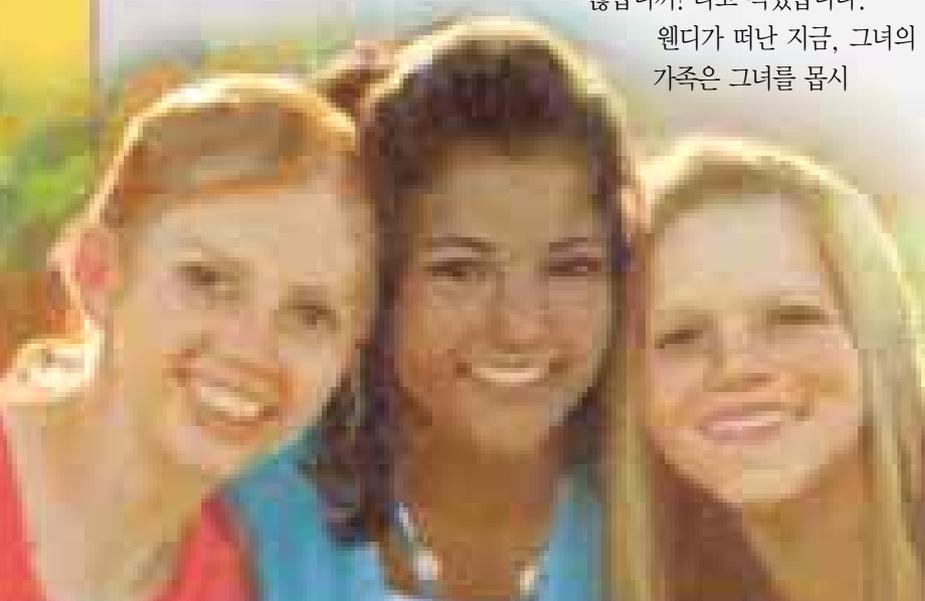
웬디가 떠난 지금,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몹시

그리워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에 대해 적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계명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귀중한 이 복음을 내 삶에 가져다주신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충실했다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복음이 웬디와 그녀의 가족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녀의 선교사였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라는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으며, 선교 사업 기간에 그녀를 만난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역시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 사업을 “네게 가장 값이 있을 일이다”(교리와 성약 15:6)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구도자들을 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영적인 명상”, 리야호나, 2003년 10월호, 3쪽)

저는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 맛보았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올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소개할 것과 그들이 반감을 가질 때에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기회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웬디 넵처럼 “주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



십일조 및 기타 헌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가? 그 답은 여러분의 십일조 봉투만큼 가까이 있다. 어떻게 이 작은 봉투에 넣는 돈이 전세계에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성명

이 부분은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으나,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 칸을 정확히 채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서기가 K. Anderson과 Kim Anderson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십일조

여러분의 [수입의] 10퍼센트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어느 곳에 십일조가 가장 필요한지 신중히 결정하여 세계 각지에 새로운 집회소를 세우는 것을 돕는 데 쓰이도록 한다.

음식 헌금

매 금식 주 일요일마다, 후기 성도들은 음식 헌금을 기부한다. 우선적으로 감독과 지부 회장은 바로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있는, 식비와 집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이 돈을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잉여분이 있을 경우 음식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

와드 선교사 기금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나간 선교사들을 도우려면 여기에 헌금한다.

일반 선교사 기금

선교사와 교회 전반에 걸쳐 여러 곳의 선교 사업을 도우려면 여기에 헌금한다.

물문경 기금

전세계의 개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물문경 인쇄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여기에 헌금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 가난한 어느 형제의 집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지자는 잠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5달러 지폐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 대해 5달러만큼의 동정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동정심을 느끼십니까?” ... 지난 해 여러분 가운데 수백만 명이 자신의 재산과 애정 어린 마음, 그리고 도움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나누려 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트 감독, 감리 감독, “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쪽.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

세계에 대규모의 자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나서서 비상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을 돕는다.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을 통해 영양 실조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내고 궁핍한 아이들에게 교육용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최근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을 통해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성전 건축 기금

전세계에 세워질 성전 건축 비용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여기에 헌금한다.

영구 교육 기금

세상 여러 지역에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후기 성도 청년 성인들이 많이 있다. 영구 교육 기금은 여러 나라의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대출해 준다.

기타

스카우트 캠프, 청년 캠프나 교회가 주최하는 다른 활동에 대한 참가비를 내야 할 경우, 이러한 비용들은 “기타”란에 적는다. 이런 기금은 사실상 헌금은 아니지만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이 그러한 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여러분에게 영수증을 주는 데 쓰인다.



하늘 문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함

저는 13살 때 처음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문 배달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슬트레이크시티에서 매일 저녁 자전거를 타고 이웃집 현관문에 신문을 던져 놓으며 돌아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매달 월급을 받아 십일조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십일조의 모범을 보여 주셨고 저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19:3~4 참조)

저는 소년으로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십일조 결산에 참여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감독님과 접견하여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다고 말하는 것은 제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저는 항상 십일조를 먼저 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제 자녀들이 십일조 결산을 위해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접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준 용돈에서 십일조를 내도록 하여 그들이 성장해서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당연하며,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리차즈 자매와 저의 결혼 초기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가 쓰는 지출에 비해 수입은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것은 커다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차즈 자매는 우리가 식비나 집세와 같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것을 위해 십일조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십일조를 가장 먼저 내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지출을 다 했을 때 겨우 1센트가 남기도 했지만 항상 수입의 범위에 딱 맞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십일조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십일조를 냄으로써 온다고 믿는 한 가지 축복은 제 일에 있어서 한번도 직업이 없이 오랫동안 지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초기에 저는 직장에서 해고된 적이 있었는데, 2주 후에 저는 그 전 직장보다 보수가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 주위의 많은 직원들이 해고 당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일조에 대한 축복을 제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십일조를 내는 신앙을 행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축복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금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내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벌



여러분이 십일조를 내는 신앙을 행사하신다면 축복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인도의 라자흐문드리에 있는 예배당 기공식에서 저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십일조는 금전적인 계명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때마다 십일조를 가장 엄두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성취할 만큼 신앙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써 오는 기분 좋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장애에 이 힘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리차즈 자매와 제가 십일조를 냄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세계의 먼 외딴 곳에 있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기꺼이 십일조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회

제게 깊은 인상을 준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 인도 땅에 세워질 최초의 후기성도 집회소 기공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인도 북동쪽 해변에 있는 도시, 라자흐문드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300만 명이 사는 곳이지만 인도에서는 비교적 작은 도시입니다.

저는 제 아내, 그리고 에버니저 솔로몬 선교부 회장님 부부와 함께 라자흐문드리를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라자흐문드리에 있는 혼잡한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극도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빈자리가 있는 곳마다 딱딱한 바닥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공식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방금 목격했던 비참함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회원들의 얼굴에서 본 기쁨에서 큰 대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했고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절망과 공허함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선택된 이유를 즉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왜 이 외진 곳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라자흐문드리에서 성도들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에 제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 이 후기 성도들은 아주 충실했으며 그들의 집회소를 갖는 것에 대하여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과부의 렘돈

기공식 이후, 솔로몬 회장님은 제게 몇 년 전에 침례를 받은 4명의 미망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70대였습니다. 솔로몬 회장님은 제게 그들은 침례 받은 이래로 계속해서 온전한 십일조를 내어 왔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 지역에서 그들에게 분명 희생이었을 십일조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낸 그들의 충실함에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솔로몬 회장님께 각 자매님들이 매달 십일조를 얼마나 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루피로 1루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액수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국 달러로는 얼마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 입니다. “그들이 내는 돈은 1.5센트에서 2센트 정도입니다.” 저는 십일조를 내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센트일지라도 십일조를 바치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예배당이라는



축복이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의 작은 돈을 수백만 달러로 바꿔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십일조는 금전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수입의 10퍼센트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희생을 할 만큼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자흐문드리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 건물 부지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부터 성도들이 모여 있는 차양이 있는 곳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 30미터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차양 아래에는 붉은색 벨벳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펫과 의자는 낡은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이 성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해 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라자흐문드리에 있는 이 성도들은 그들의 십일조를 내는 것이나, 방문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주님께 충실히 드리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의 10퍼센트가 작거나 크게, 또는 큰 쓸모가 없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시킬 것이며 후기의 심판에 대해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십일조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2:10, 130:21 참조) 저는 라자흐문드리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십일조를 충실히 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원문: 사진, 라자흐문드리의 해리를 받아 게재함, 오른쪽: 사진 촬영, 존 루크



시

앨리스 포크너

어린 시절, 나는 바다에 있는 찢어진 팜플릿 조각에서 시를 하나 발견했다. 나는 값싼 임대 주택에서 살았고 외톨이었으나 내게는 세 가지 탈출구가 있었다. 책,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 그리고 시였다. 나는 시를 매우 좋아했다.

시는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내면에 말을 걸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팜플릿에 실린 시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나는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

나는 매일 그 시를 읽었다. 몇 년 동안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그 시를 읽었다.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기 위해 복도를 걸어 가면서,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그 시를 읽으면서 나는 시의 일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 전엔 시를 외워 본 적이 없었으나 이 시는 달랐다. 그 시 안에는 내게 말을 하고, 나를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었다.

은은히 주는 당신의 말씀
나의 거할 곳 천국이니
나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
이제 내가 아니이다

나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때때로 어딘가에 또다른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

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나는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왔다. 그 안에는 내게 말을 하고 나를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었다

꺼내어 읽곤 했다. 나는 나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
출생과 친구 모든 전생일
완전히 잊었을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 내가 구도자로 성찬식에 처음 참석했을 때 지정된

정말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시는 이런 것들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가끔 나는 서랍에서 그 시를

찬송가의 페이지를 펼치고 그 오래 전에 발견했던 시를 보게 되었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때 혹은 한밤중에 깨어나 울면서 소리 내어 내 자신에게 불러 주었던 그 곡의 음과는 달랐지만 피아노에서 들려오는 찬송가를 듣고 나는 그 곡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찬송가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9장)를 부르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나의 길에 놓아 주신 것을 알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다.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 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 곳

성찬식에 앉아 회중이 나의 시를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선교사들이 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가 침례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는 것이 그분 앞에
옳은 일인지 여쭙어 보았을 때
'그렇다' 라고 받았던 응답에 놀라지
않았다.

위커 장로와 위티커 장로와 함께
3주간 선교사 토론을 마친 뒤에 위커
장로는 나를 침례의 물가로 인도했다. 내
몸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은 내가
경험한 어떤 느낌보다도 더 깨끗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느낌이었다.
나를 회원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원으로
둘러 섰다. 함께 섰던 분은 나의 첫
번째 감독님이었고, 그분은
선교사의 방문을 요청하는 나의
전화에 응답해 주셨던 분이였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시의
구절들이 마치 감미로운 후렴구처럼
내가 만난 사람과 나를 교회로
인도한 각각의 행동 사이를 맴도는
것을 들었으며, 그 구절들은 영원한
아버지를 다시금 알기 원하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줄
성령으로 아나이다.
지식의 열쇠 회복되기 전
참 그 이유 몰랐으며 ■

제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브렌다 힌트

우 리 와드의 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달콤한
평화에 관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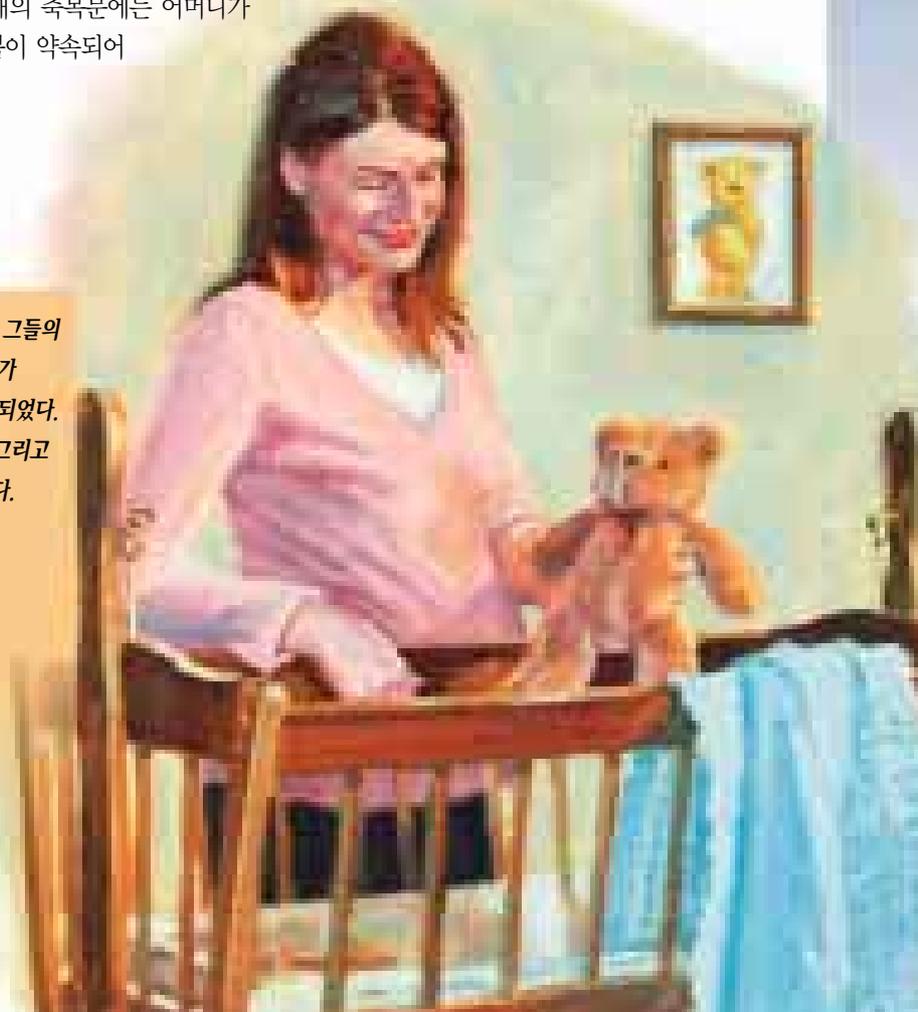
이 자매의 축복문에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수년 동안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했다.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홉
달 동안 그들의 삶은 아기를 맞이할
준비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아기 방에 페인트를 칠했고, 가구, 옷,
아기용품들을 샀다. 의사는 그녀가 이번
출산 후에는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녀의 꿈은
오로지 이 아이에게 달려 있었다.

아기를 출산하는 날이 왔고 그녀는
아기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잘 생긴 아들이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마 침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들은 가구, 옷, 그리고
아기 용품들을 샀다.



엄마는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4분 후에 그 아기는 세상을 떠났다.

2주 후에 나는 그녀를 성찬식에서 보았다. 지휘자였던 그녀는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 오르간 옆에 앉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우리는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불렀다.(찬송가, 68장) 그녀는 똑바로 섰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고, 그녀의 간증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때금 가사는 그녀에게 매우 어렵게 다가왔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런 후 그녀는 노래를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의 팔은 노래를 지휘하며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눈물이 하염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그녀는 짧게 간증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공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 아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에서 나는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능하게 해 주신 우리 구속주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보았다. 그녀의 아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아들을 되찾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왜 영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는가?

로저 비 울스턴홀

19 80년 여름, 메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에서의 나의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관심 있는 한 젊은 대학생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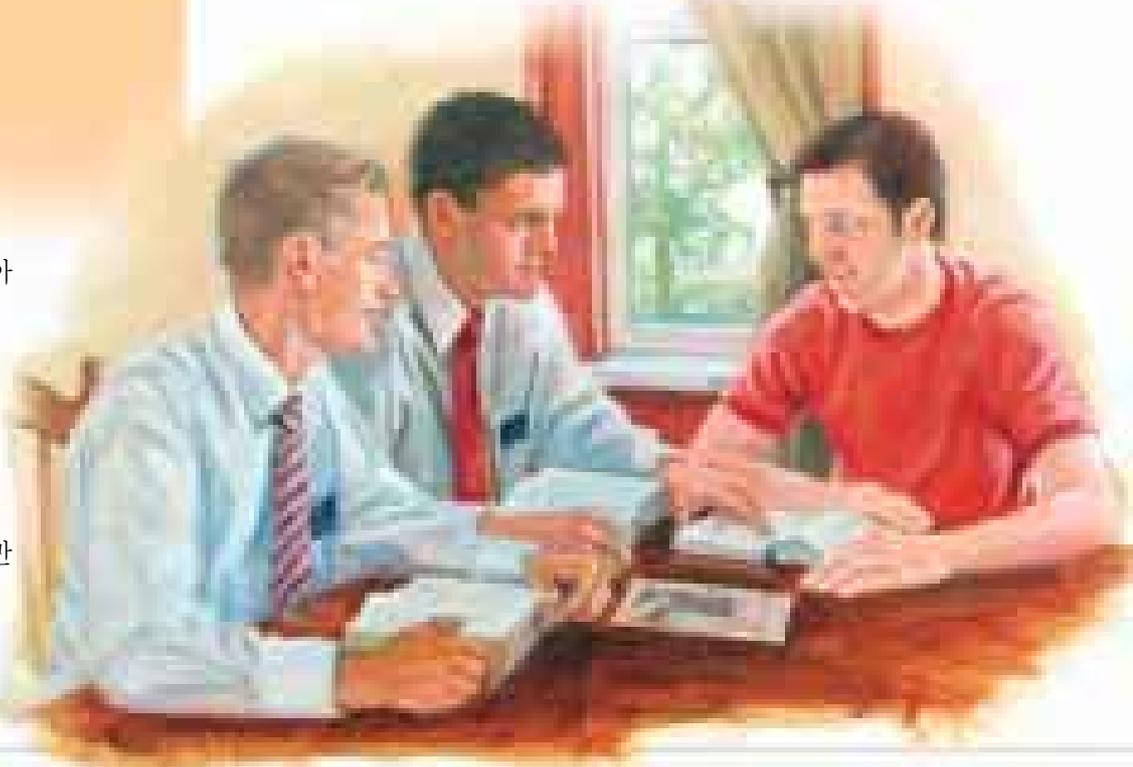
여러번의 선교사 토론 동안, 나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이 참되다는 것을 성신이 반복해서 내게 증거할 때 거의 압도되었다. 나는 소리 내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다. “저는 이것을 이미 압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지난 이

선 교사 토론을 갖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성신에 의해 거의 압도되었다.

년 동안 수 차례 가르쳤습니다. 제게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도자도 이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나는 선교부 회장님을 만났고 그분은 내 어머니께서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은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전체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들이 지나가고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내가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동안 영이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것이 분명히 떠올랐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겪을 상실에 대해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날마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나 는 그 선교사에게 회답의 전화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놀랐고 내게 전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또한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가올 상실에 대비해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한다. ■

예상치 못한 전화

클라우디오 시빅

2004년 2월 7일 토요일, 아내와 나는 스페인 빌바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지역인 스페인 북부 히혼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듣지 못한 메시지가 있는지 핸드폰을 보았다. 한 선교사로부터 온 부재중 통화 표시가 있었다. 나는 누가 전화 했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다시 전화하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 선교사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인사 후에, 나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는 놀랐고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가 부재중 통화로 내 전화기에 나온다고 말했고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5분 후에 그는 다시 내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회장님, 정말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달라고 기도하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디만 제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동안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회장님께 즉시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틀 후에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장로에게 그가 전화를 했었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는 그의 전화 기록 상에 심지어 실수로도 그가 내게 전화한 기록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요리와 성약 112:10)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을 가르치며 말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엘마서 37:37)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평화를 느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을 해야 한다. 그 예상치 못한 전화는 분명 한 젊은 선교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

일부만 회원인 가족의 힘

저는 제 생애 대부분을 일부만 회원인 가족으로서 보냈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많은 도전들에 직면했습니다. 특별히 *리아호나*를 비롯하여, 영감을 주는 교회 책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가 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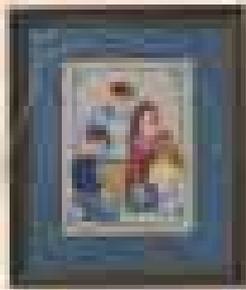
복음이 삶을 바꾼다는 것을 매달 기억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드라 비노쿠나, 에콰도르

선지자의 음성

리아호나, 2005년 10월호는 세계 특별히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실린 모든 기사와 특히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의 메시지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에 대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후기에 우리를 이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주신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메니케 호프 온우체과 장로,
나이지리아 이바단 선교부*



PDF 버전에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는 잡지이며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 확실히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잡지의 내용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디자인과 삽화도 아름답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PDF로 된 이 잡지를 다양한 언어로 읽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잡지를 오리거나 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냉장고에 인용구나 그림을 붙이고 싶을 때

혹은 함께 나누는 시간이나 가정의 밤에서 자료를 사용하고 싶을 때 저는 필요한 부분만을 출력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크리스천 칼슨, 미국

주: www.lds.org에서 다양한 언어로 *리아호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원하시면, “Gospel Library”를 클릭 하세요. 다른 언어를 원하시면 world map을 클릭하세요.

가장 빛나는 보석

저는 발행되는 모든 *리아호나* 잡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각각의 책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간증은 강해집니다. 이 잡지는 이 후기에 진정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제일회장단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주처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외에도, 심지어 대양의 반대쪽에도

같은 잡지를 읽고 있는 후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세계 큰 기쁨이 됩니다.

호세 라미레스, 베네수엘라

모국어

저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그러나 8개월 전에, 저와 남편은(미국) 아이다호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에서 일요일에 듣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모임에서 성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모국어로 지도자들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세계, *리아호나*는 진실로 성스러운 기록을 전해 줍니다.

레나 캔터, 미국

기사를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혜의 말씀 대로 생활함으로써 영적인 축복과 신체적인 축복을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동, 바른 식습관, 그리고 신체를 돌봄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 기사를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church.org나 아래의 주소로 2007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Word of Wisdom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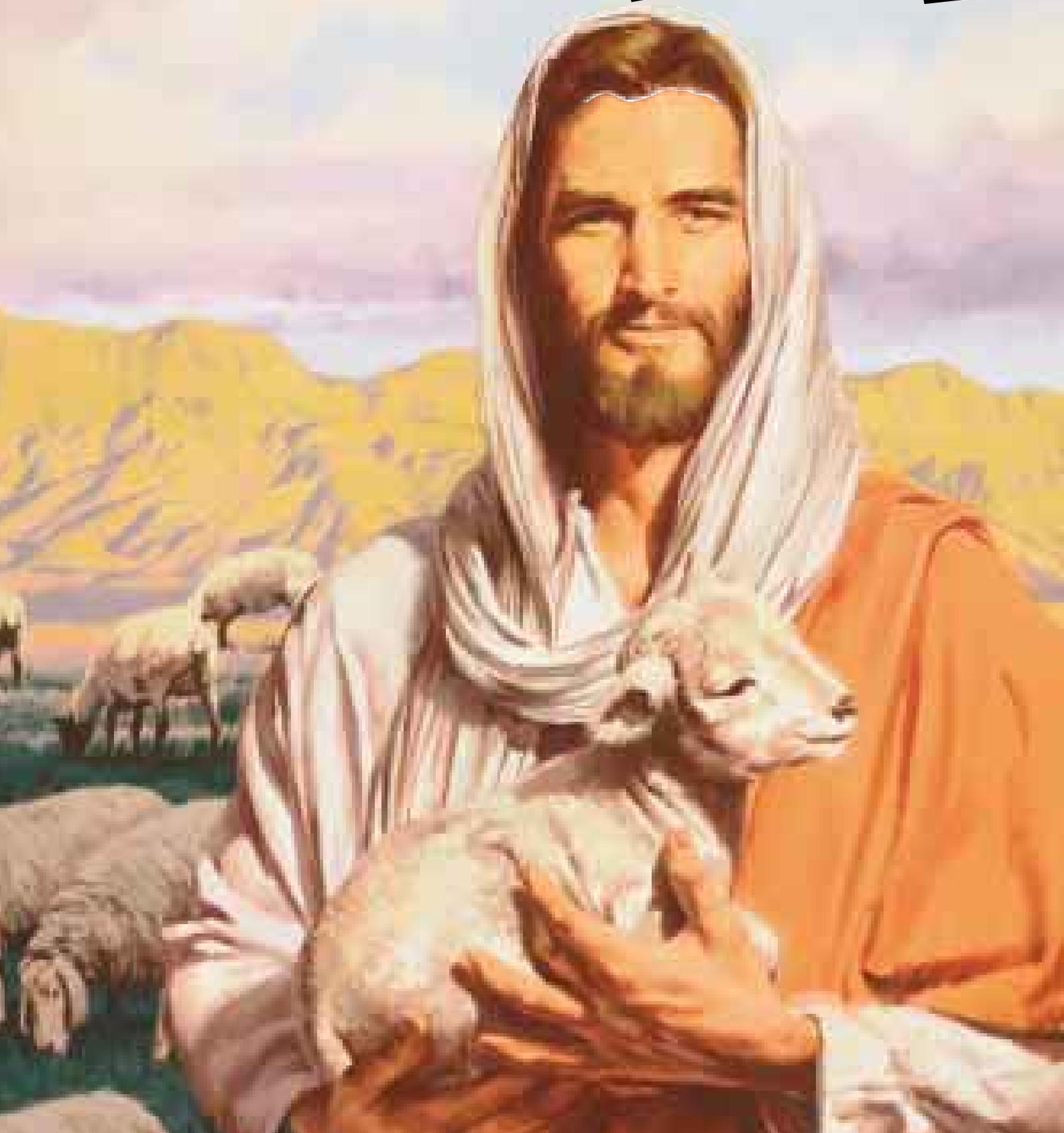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 명칭(지부 및 지부명 명칭)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선택된 글의 저자에게는 연락을 드립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리아호나*는 세계 훌륭한 동반자이며 도움을 줍니다. 매달 저는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에, 저는 *리아호나*가 바로 저와 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조지아 아돌포 파올라야, 필리핀

친구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몬슨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간증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몇년 전에, 솔트레이크시티 신문에 한창때 사망한 한 가까운 친구의 부고가 실렸습니다. 저는 영안실을 방문해 그녀의 남편과 엄마 잃은 아이들을 조문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행렬에 끼었습니다. 갑자기 가장 어린아이인 켈리가 저를 알아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엄마가 누워 있는 관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전 울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우시면 안 돼요. 엄마가 죽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에 대해 아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랑 엄마한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함께 살 거예요.” 시편 저자의 말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이들 ... 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시편 8:2)

축축해진 눈으로, 저는 어린 친구의 신앙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에게 절망적인 어둠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확실한 간증의 뒷받침으로 삶은 무덤을 초월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이 신성한 진리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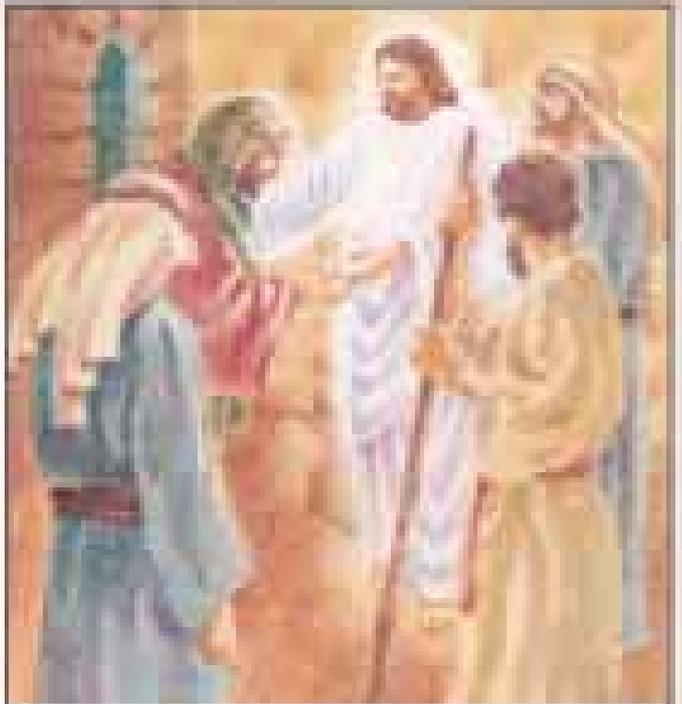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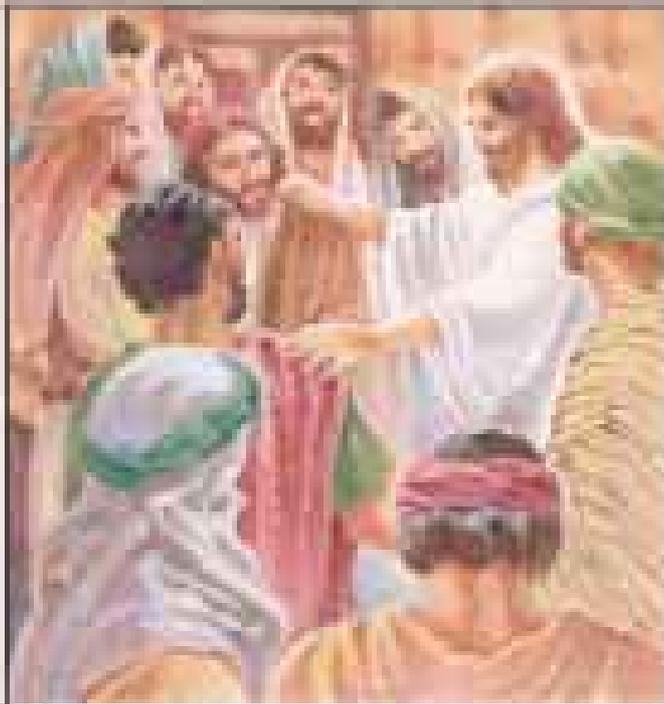
저는 제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적인 어둠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는 힘찬 빛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

1976년 연차 대회 말씀에서

생각해 볼 점들

1.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켈리는 울고 싶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2. 켈리의 엄마가 켈리에게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왜 그렇게 자주 말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3.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가?(고린도전서 15:23; 니파이후서 2:8~9) 이것에 대해 부모님과 토론해 본다.





주:
 잡지를 오리고
 싶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 www.lds.org 에서
 이 활동을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다른 언어로 된 자료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엘리자베스 리스



닐슨 자매는 햇님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의 상처를 보여 주고 있는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셨단 말씀이세요?” 헤더가 물었습니다.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응, 그분은 다시 사셨어. 우리도 다시 살 거야!”

세 살짜리 제이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매주 제이크는 닐슨 자매의 공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했습니다. 제이크는 가정의 밤 시간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했습니다. 제이크의 마음속에 있는 느낌들은 그에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도마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한복음 20:25)

팔 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29)

제이크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은 우리 구주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신앙은 크게 자랄 것입니다.

활동

친구들 4쪽을 두꺼운 도화지 위에 붙이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사도들, 도마의 그림을 오려 낸다. 점선을 따라 가장자리를 접어서 사람의 모형들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가족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분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세 개의 신발 상자를 보여준다. 차례대로 상자에서 신발을 한 켤레씩 꺼낸다.(신발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해도 된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을 의미하는 장화 한 켤레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무덤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다음, 샌들 한 켤레를 이용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활한 구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동산 무덤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린이들에게 묻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보통 신는 한 켤레의 신발을 보여 준다.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증한다.
2.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지상에는 몇 명의 선지자가 있는지 묻는다. 제일회장단의 각 구성원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선지자, 선전자 및 계시자로 지지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15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의 회장은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연차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고학년 아이들에게 한 사도도 연차 대회에서 전한 메시지에 대해 2주 후에 발표해 주도록 부탁한다.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메시지에 관해 말할 때, 그 사도의 사진을 전시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피아노 연주



스펜서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피아노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했다.

애들아,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은 값진 일이다.



스펜서는 피아노를 치기에는 자신의 손가락이 너무 짧고 통통하다고 생각했다. 또 자주 구슬치기를 하느라 손가락들은 더 있었다.



몇 차례 피아노 레슨을 받은 후에, 스펜서는 그만두고 싶어했다.

스펜서, 오늘 네가 피아노 연습을 하면, 다른 형제들과 같이 도랑을 파지 않아도 된다.

네, 알았어요.



스펜서는 14살 때 밴드에 들어가 무도회에서 음악을 연주해 주고 돈을 벌었다.



그는 파티에서 친구들을 위해 연주하기도 했다.

노래하자!
난 연습을 안 했어.
누가 반주할 건데?
난 악보 없이는 칠 수 없어.
나보단 네가 백 배는 잘 치지만, 내가 해볼게.



그의 음악 실력은 몇 년 후 선교 사업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거 김볼 피아노인가요? 제 이름도 김볼입니다.
김볼이 김볼 피아노로 연주하는 찬송가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좋아요, 들어주세요.



사도로서, 그는 교회 일로 여행하는 동안 함께 머무는 가족들을 위해 종종 연주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이 나의 설교는 잊을 지라도, 노래 불렀던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라기 3:10)

하나님의 법을 배움

패트리샤 알 존스, 실화에 근거함

실화: 로버트 에이 맥케이

“이 게 열 번째 단이다.” “더 높은 쪽에 놓으렴.”이라고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그에게 소리쳤다. 어린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발 저편 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그들이 거두어 들인 처음 아홉 단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열 번째 단을 감독의 창고에 십일조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왜 주님께 그들이 거두고 있는 똑같은 건초를 드리면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에게 다시 소리쳤다. “아니요, 그냥 순서대로 가져갈게요.”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아버지가 몸을 돌려 그에게 곧장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발에 불던 미풍이 그치고 해가 뜨겁게 내리쬘었다. 데이비드는 이마와 목 뒤의 땀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무례한 대답에 대해 아버지가 그를 칭찬해 주시려 발을 가로질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데이비드에게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건너오고 계신 것이었다.

“아니다. 데이비드.” 아버지는 엄하게 말씀하셨고, 그 목소리에 담긴 차분함은 데이비드를 더욱 긴장시켰다. “이것은 열 번째 단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미흡하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그가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셨다. 그런 후 아버지는 돌아서서 가셨다.

데이비드는 감정을 억제하며 말을 더 높은 쪽으로 몰았다. 그는 마차에 건초를 실으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십일조가 순종이나 희생처럼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 즉 가장 좋은 것들을 그분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신명기 12:6 참조)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을 가지셔.”라고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두는 방법인가 보다.”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십일조를 바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어머니는 필요한 돈을 먼저 쓴 후에 십일조로 낼 돈이 남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즉시 감독님께 십일조를 드린 후 남은 돈으로 살림을 꾸리셨다. 첫 번째의 가장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

데이비드는 건초 마차를 끌고 먼지 나는 길을 지나 감독님의 창고로 갔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가 건초 더미를 내렸다. 풍성한 단은 밭에서보다도 훨씬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주님께 가장 좋은 건초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희생이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그의 아버지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완벽한 아들을 세상을 위해 보내신 것과 같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

마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훌륭한 느낌이 그를 감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십일조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뻐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기억할 교훈이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년)에서 발췌, xv. 맥케이 회장(1873~1970)은 교회의 제9대 회장으로 1951년에서 1970년까지 봉사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가 희생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헌납의 법 및 해의 왕국의 다른 더 높은 율법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일조”, Ensign, 1994년 5월호, 34쪽.

안녕하세요! 전 클라라 크리스틴슨이에요

전 캐나다 온타리오
키와틴에 살아요

멜빈 리빗
교회 잡지

열 한 살인 클라라 크리스틴슨은 집 뒷마당에서, 달력의 한 페이지에 나올 법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 그녀의 집은 남쪽으로는 미국까지 서쪽으로는 매니토바까지 펼쳐진 맑고 거대한 호수, 레이크 오브 우즈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기슭에 위치해 있다. 여름에 호수는 수면에 비치는 햇빛으로 반짝이고, 겨울에는 눈 덮인 얼음으로 반짝인다.

이 호수와 주변 숲은 클라라처럼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에게서 꿈의 세상이다. 그녀는 여름에 수영, 배 타기, 낚시와 하이킹, 야영을 즐긴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와 설상차 타기, 크로스 컨트리와 스키, 가파른 언덕에서 카펫 조각으로 썰매 타기를 즐긴다. 겨울철 온도는 밤에 섭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눈은 4~7피트(1~2미터)까지 쌓인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은 클라라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들이다.

씩씩하고 활동적인 이 소녀는 다양한 실내 활동도 좋아한다. 그녀는 독서, 뜨개질, 리코더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 그녀는 모든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를



사진 촬영: 멜빈 리빗과 빅토르 케이브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클라라는 인정이 많고 아이들과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종종 사촌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아이들이 없을 때에는, 인형들의 엄마가 되어 준다. 고양이도 그녀가 매우 좋아하는 동물이다. 릴로, 히로, 호프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며 종종 그녀의 침대에서 잔다.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이다. 클라라는 커서 아기나 고양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잘해 낼 것이다. 이런 성격은 그녀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클라라는 어릴 때 언어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더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뇌와 입 사이에서 신호가 영겨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라는 적절하게 소리를 내고 그 소리들을 섞어 단어로 만들기 위해 턱, 입술, 혀를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으나 클라라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혹독하게 연습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단어들은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녀는 말을 잘한다.



저는 제 고양이들인 릴로, 히로, 호프와 저의 개 퍼프를 사랑해요.



이분은 저희 할머니 캐롤린이예요. 할머니는 제 초등학교 교사세요.

저희 언니 조시와 엄마를 만나 보세요. 칼리 언니는 먼 곳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클라라가 다니는 학교의 4학년 어린이들에게 4~5분간 말하기 과제가 주어졌다. 클라라는 유태인 학살에 관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이 발표에서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소녀의 입장이 되어 발표를 했다. 맨 처음 연습했을 때는, 발음하기 어려운 많은 단어 때문에 8분 40초가 걸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연습했다. 소요 시간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녀는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4분 40초 만에 발표를 마쳤고, 학급 친구들은 클라라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대표자로 뽑았다. 그녀가 발표를 했을 때, 전교생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다. 많은 학생들이 클라라를 일학년 때부터 알았고,



저는 스케이트 타기와 뜨개질을 좋아해요.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엔 못하죠!



그녀의 발전은 기적처럼 보였다. “교장 선생님은 울고 계셨어요.” 클라라의 어머니가 회상한다. “클라라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우셨어요. 4학년 담임 선생님은 환호하셨고요. 정말 대단한 승리였어요. 제 인생의 놀라운 순간들 중 하나였죠.”

클라라가 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노력함.”이다. 그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조언한다.

물론 기도 역시 클라라가 이룩한 승리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가정의 밤, 경전 공부,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언니도 좋은 모범과 읽기 자료를 통해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18살인 칼리, 15살인 조시는 열두 살이 되자마자, 뉴 이리의 포스터들을 거울에 붙이기 시작했다. 또한 클라라는 세미나리 경전 암송 구절들을 외우고, 언니들과 핑클리 회장님의 “6B”를 배웠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부 회장이고 어머니는 청년 회장이자이다. 그래서 클라라는 지부 활동에 항상 참여한다. 여름을 제외한 가을, 겨울, 봄에는 케노라 지부의 참석 인원이 적다. 사실 클라라는 할머니가 가르치시는 초등학교의 유일한 반원이다. 그러나 여름에는레이크 오브 우즈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지부는 매주 방문객들로 넘친다. 클라라는 모든 멋진 친구들과 새로운 우정을 나눈다. 가족들은 서쪽으로 두 시간 반 정도 위치에 있는 매니토바, 위니펙에 있는 스테이크 활동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일년 내내 교회 가까이 머문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종종 하늘에서 춤추는 북극광을 본다.

클라라 역시 다른 친척들과 가까이 지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촌과 삼촌, 이모들이 모두 할머니 댁에 와서 잔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노래하며 양말을 걸어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꾸미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코코아와 십자가가 그려진 빵, 그리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밤에는 가족들이 클라라의 집에 다시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 복싱 데이(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날, 보통 12월 26일)에는 각 가족의 가정에서 다른 메뉴의 아주 멋진 저녁 식사를 한다.

저는 음악이 좋아요, 저는 피아노,
리코더, 철금을 연주해요.



클라라는 자연의 아름다움, 가족 사랑의 따뜻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 모든 영향력들은 그녀의 얼굴과 영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겨울의 가장 추운 날씨에도 그녀는,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한다. 그녀의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클라라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

한 천사 조셉에게 와

확신을 가지고 ♩ = 88-100

G C G D7 G C Bm Em

1. 한 천사 조셉에게와 땅에서 꺼냈네 감
2. 여호와 손에 인도된 땅 성의 애기 와 오
3. 레이 맨 족이 야기 와 니 파 이 야 기 야
4. 이 세 상 주 관 하 시 는 주 하 나 님 의 뜻 나

Am Em C G Am D7 G

추 인 거 록 한 기 록 귀 하 고 귀 한 책
래 전 여 기 살 았 던 민 하 의 이 야 기
렛 민 족 이 야 기 와 선 지 자 이 야 기
도 귀 한 그 책 읽 고 이 해 하 고 싶
네

작사(영어): 안나 존슨, 1892~1979년. © 1969 IRI

작곡: 에이 로렌스 리온, 1934년 출생. © 1989 IRI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조셉 스미스-역사 1:59

니파이전서 18:22~23

제4니파이 1:15~18, 모로나이서 10:3



DETAIL FROM MORONI DELIVERING THE GOLDEN PLATES, BY GARY KAPP.
MAY NOT BE COPIED; BOTTOM: LEHI AND HIS PEOPLE ARRIVE IN THE PROMISED
LAND, BY ARNOLD FRIBERG; ALMA BAPTIZING IN THE WATERS OF MORMON,
BY ARNOLD FRIBERG; MORONI BURYING THE PLATES, BY TOM LOVELL

어머니의 영향력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언 1:8)



현재 칠레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님과 그의 인터뷰에서, 캘리 바이스.

저 어머니는 매우 특별한 여성입니다. 저는 여덟 아들 중 첫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족 안에서, 저의 어머니는 커다란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하신 가장 훌륭한 일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선교사를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10살 내지 11살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첫번째 시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의 아들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저에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자마자 저는 복음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선교사들의 첫 번째 방문에서 간증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항상 저희의 하얀 셔츠들을



빨아서 일요일에 입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두와 어린 동생들의 구두를 닦곤 했습니다. 우리는 과테말라의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하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항상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저희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회장으로, 누나가 초등학교 회장으로, 어머니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시고, 네 명의 형제들이 성찬을 전달하고 준비하고 축복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는 제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열 아홉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게 선교 사업을 일년 후에 하고 가족을 돕기 위해 계속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게, 봉사하려면 일 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제가 일 년을 더 일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봉사하게 해 줘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축복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러 가기 전에는 제 동생과 저만이 일을 해서 가족을 도왔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나자마자 세 명의 남동생과 두 명의 여동생들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은 모든 축복과 부름들로 인해 저는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어머니의 훌륭한 영향력과 모범을 기억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밖에 못 받으셨지만 참된 복음의 지식과 삶의 실용적인 지식과 이해력은 매우 뛰어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집에 계시면서 저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지셨고, 항상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몇 시간이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 이모들, 삼촌들에 대해, 그리고 그분들과 지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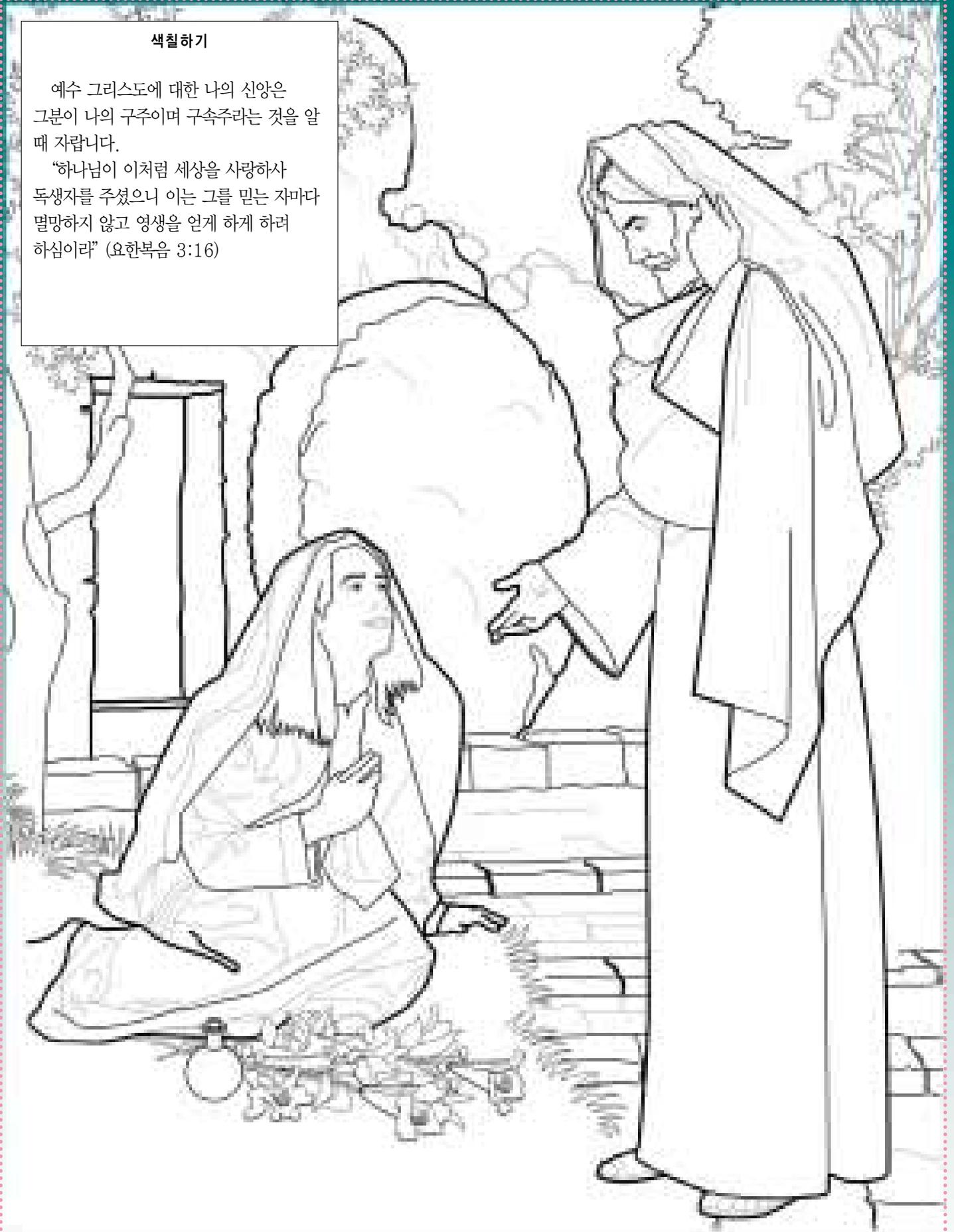
저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계명의 가치를 믿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어머니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



색칠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은
그분이 나의 구주이며 구속주라는 것을 알
때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아래 오른쪽: 제일회장단이 2006년 제일회장단 크리스마스 영적 모임 중, 템플스퀘어의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있다.

제일회장단, 영적 모임에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다

연례 제일회장단 크리스마스 영적 모임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려 전 세계로 방영되었다. 이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모든 절기 가운데 성탄절처럼 아름다운 때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한 자들에게 향합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겨 냅니다. ... 사랑은 좀 더 커지고, 마음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고 처진 손을 들어올려주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대기는 마법에 걸린듯 보입니다.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1930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어머니를 여의고 2004년 아내를 잃은 이야기를 한 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어둠을 통해 비춰진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

나님의 아들의 숭고한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 즉 세상의 구속주가 이루신 속죄의 사실입니다.”

힝클리 회장은 전쟁과 분쟁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이 시대에도 구주는 모두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고 간증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크리스마스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며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의 영은 사랑, 관대함, 그리고 선함의 정신입니다. ... 이러한 성탄절의 정신이 이 특별한 절기 뿐만 아니라 한 해 내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몬슨 회장은 성탄절의 영을 간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하게 된다고 하시며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던 말이기도 했지만 성역 동안에 주님이 자주 참아내셨던 인사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집에는 식사하고, 잠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이셨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또한 우리는 “[구주의] 탄생을 기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또한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망 및 부활의 신성함을 숙고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말씀 중에, 파우스트 회장은 구주의 “위대하고 심오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인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모를 선행은 구주의 사랑을 반영한다고 파우스트 회장은 말씀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남모르게 선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자신들의 마음에 넘쳐 나는 감미로운 영을 느끼게 됩니다. 남모를 선행은 한 차원 높은 형태의 신성함을 더합니다.” ■

사회 정의 및 예술 면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의 이름을 붙인 상을 수상했다.

“이 합창단은 아름다움으로 온 세상에 감동을 주는 유일한 합창단입니다.”라고 테레사 수녀상을 수여하는 단체인 성 베르나데트 종교 예술 협회의 책임자인 댄 파울로스가 말했다. “세상에는 합창단이 많지만, 어떤 것도 그만큼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2006년 11월 19일, 일요일, 합창단원들은 *Music and the Spoken Word* 주간 방송 후 간단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조셉 메이요 수석 사제와 매들린 가톨릭 교구 사제는 합창단을 대표한 맥 크리스텐슨 합창단장과 크레이그 제섭 음악 감독에게 상을 수여했다.

“저희는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을 대신하여 영광스럽게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녀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딴 상을 저희가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합창단 총 매니저인 스코트 엘 바릭 형제가 말했다.

이 협회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 영적인 업적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시상 프로그램 만들었다.

작은 조각상은 테레사 수녀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상자는 일반 대중이 추천하고 테레사 수녀상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자원 봉사자 합창단원은 여러 다른 배경과 직업과 나이를 가진 350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단은 많은 녹음 작업과 순회 공연, 주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태버너클 합창단, 테레사 수녀상 수상하다

작 고한 마더 테레사는 “세상은 식량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도 굶주려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06년 11월 물론 태버너클 합창단은 “특별히 종교와



조셉 메이요 수석 사제(오른쪽)가 물론 태버너클 합창단의 Music and Spoken Word 일요일 공연 후, 크레이그 제섭(왼쪽)과 맥 크리스텐슨에게 마더 테레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전 수상자들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마야 앤질로우, 벨슨 만텔라, 지미 카터 등이 있다. ■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 DVD로 만들어지다



영화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이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 18개 언어로 된 DVD로 구입이 가능해진다.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독점적으로 5년간 상영되었던, 영화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이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 배부 센터에서 DVD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 무리와 한 목자의 성약은 두 성약인 성경과 몰몬경에서 이야기되어진 것과 같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약과 그 후에 그분이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나신 것을 묘사한 서사적 이야기이다. 가상의 헬람 가족이 구주가 아메리카 대륙에 나타나실 표적과 오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영화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칠십인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 영화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세상의 빛이요 생명”임을 입증하고 구주께서 그 분을 믿는 자들의 삶에 끼치는 놀랄 만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제작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고 고대 아메리카 문명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요했다. 영화는 유타, 캘리포니아, 하와이 주에 있는 57개의 세트 장치에서 촬영 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세트는 축구 경기장 만한 것이었다. 48개의 주요 배역진과 52명의 주연급 배우들, 1,000명 이상의 엑스트라 연기자들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템플스퀘어의 오케스트라와 태버너클 합창단이 음악

을 제공했다.

65분짜리 이 영화는 이제 교회 배부 센터에서 세계 18개의 언어(한국어, 광둥어, 네델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만다린어, 미국수화,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로 된 다국어 DVD로 구입이 가능하다. ■

박물관, 제8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를 발표하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은 제8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주제를 발표하고 2009년 3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전세계 교회 회원들을 초대한다.



침례, 제이 커크 리처즈의 유화, 가장 최근의 미술 대회에서 공로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조셉 스미스, 조셉 엘 헤이우드의 침례를 위해 얼음을 자르다, 제7회 국제 미술 대회 스테인드 글라스 출품작, 페트리샤 치우 작

전시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는 모든 곳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경험을

총 망라한다. 작품은 (1)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있는 이야기들을 포함하여 후기 성도 교리, 믿음, 가르침들 (2) 사진, 장소, 교회 역사 및 그 속의 사람들과 관계 있는 인물들 (3) 교회, 가족, 개인적인 활동을 포함한 후기 성도 삶 속의 종교적 가치의 적용과 관련 있는 주제, 생각, 이야기, 사람들이나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가 18세 이상인 교회 회원들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 한 명당 한 작품씩 출품이 가능하다. 전세계의 문화, 심미적인 전통이나 예술 양식, 다양한 매체, 모두 환영이다. 참가 작품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정식 참가 신청서는 2008년 4월 박물관 우편 목록에 있는 작가들에게 우송될 것이다. 신청서는 또한 박물관 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우편 목록에 포함되기를 원하거나 기존의 우편

목록에 있는 정보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 주소로 편지를 보내거나 이 메일을 보내면 된다. Eighth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 45 North West Temple St., Rm. 200, Salt Lake City, UT, 84150-3470, USA 또는 E-mail: churchmuseum@ldschurch.org

첫 번째 심사는 2008년 10월 10일 이전에 우편이나 온라인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작품의 사진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작품은 주제의 성공적 표현, 예술 및 기교의 완성도, 그리고 창조성, 독창성, 예술적 자질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포상에는 교회 소장을 위해 구매되는 다수의 구매상, 심사 위원에 의해 주어지는 25개의 상금이 주어지는 공로상과, 역시 상금이 주어지는 3개의 방문자 선택상이 있다.

웹 사이트 www.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에서 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전 전시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다. ■

가족 역사 도서관, 세계 각지의 전통을 기린다

린다 헨스, 교회 잡지 기자

스칸디나비아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고 스코틀랜드어로 된 “올드랭사인”을 부르는 것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있었던 12월의 여러 활동 중 두 가지에 불과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열린 무료 저녁 강좌에 참



12월 동안 회원들은 가족 역사 도서관에 모여 다른 문화의 명절 전통을 배웠다.

석한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의 명절 전통을 배웠다.

여러 나라 출신의 원주민들이 대부분의 단기 강좌들을 계획하고 12월의 축제, 음식, 장식, 음악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가르쳤다. 강좌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으며 가족 활동들도 제공되었다.

가족들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가계도를 만들도록 권고 받았으며, 아이들은 가계도 위에 자신과 부모와 조부모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참가자 전원이 박하사탕을 받았고 4대 가계도를 완성한 가족들은 “Family history is fun”(가족 역사는 재미있어요)라고 적혀있는 펜을 받았다.

가정의 밤과 가족 역사를 위한 아이디

어 목록은 집에 가져가 이용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아이들과 부모가 조부모를 만나 얘기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네델란드,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의 특색이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었으며, 유대인과 개척자의 전통들도 토의되었다.

초보자를 위한 반 책임자인 다이앤 루슬은 도서관이 이 행사를 후원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루슬 자매는 평소에 가족 역사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데에 활동의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도서관의 목적 중 하나는 도서관에 와서 보다 나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가족 역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앙 가족 역사 도서관은 이런 종류의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하루 개방 시간 동안 1,9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 강좌는 다양한 수준의 경험자들과 초보자들을 위해 제공되며, 125명의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0명에 가까운 훈련된 자원 봉사자들 또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도움을 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www.familysearch.org를 방문하도록 한다. ■

리아호나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내주십시오

다 음 질문에 답함으로써 여러분은 리아호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뜯어서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 설문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나 기타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기입하지 마십시오. 2007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나는 _____이다 남성 여성
- 나는 _____이다 기혼 미혼
- 나는 _____에 산다. (빈 칸에 국가명을 적으십시오.)
- 나는 _____이다.
 만 15세 이하 만 16 ~ 18세 만 19 ~ 30세
 만 31 ~ 40세 만 41 ~ 50세 만 50세 이상
-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몇 부의 리아호나를 구독하십니까?
 0부 1부 2부 3부 3부 초과
- 여러분 외에 몇 명이나 여러분의 리아호나를 사용하거나 읽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 초과
-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의 십대 청소년(만 12~18세)이 살고 있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4명 초과
- 만일 십대 청소년이 사는 집에서 한 부만 구독하신다면,
 십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읽은 후 리아호나를 읽는다.
 십대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읽기 전에 리아호나를 읽는다.
 십대 청소년들은 리아호나를 읽지 않는다.
-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의 어린이(만 3 ~ 11세)가 살고 있습니까?
 0명 1명 2명 3명 4명 4명 초과
-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린이들은 보통 스스로 어린이란(친구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은 보통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을 읽는다.
 어린이들은 친구들을 읽지 않거나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어린이란(친구들)을 책에서 분리시킵니까? 아니오 예
- 여러분은 리아호나를 보통 얼마나 읽습니까?
 보통 성인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보통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들만 읽는다
 전체 혹은 거의 전체 기사
 읽지 않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

-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만일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에 접속한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 인터넷을 통해 리아호나를 접속할 경우, 여러분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이 설문지의 언어
 영어
 기타
- 다음 설명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거나 반대하십니까? 각 설명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강하게 반대	반대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동의	강하게 동의
--------	----	---------------	----	--------

 - 리아호나의 기사를 이해하기 쉽다

1	2	3	4	5
---	---	---	---	---
 - 리아호나의 기사가 너무 길다

1	2	3	4	5
---	---	---	---	---
 - 매 리아호나마다 내가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다.

1	2	3	4	5
---	---	---	---	---
 - 매 리아호나에는 나의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다.

1	2	3	4	5
---	---	---	---	---
 - 리아호나의 그림이나 삽화가 기사를 읽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1	2	3	4	5
---	---	---	---	---
 - 리아호나의 그림들은 전세계적인 교회를 나타내 준다.

1	2	3	4	5
---	---	---	---	---
- 다음에 설명된 리아호나 기사의 유형 중, 여러분이 읽는 빈도수를 가장 잘 설명한 항목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전혀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	가끔 읽는다	항상 읽는다
-----------	-----------	--------	--------

 - 제일회장단 메시지

1	2	3	4
---	---	---	---
 - 현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쓴 그 밖의 기사

1	2	3	4
---	---	---	---
 - 복음 고전 (과거 총관리 역원들이 쓴 말씀)

1	2	3	4
---	---	---	---
 - 방문 교육 메시지

1	2	3	4
---	---	---	---
 - 외설물이나 도박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

1	2	3	4
---	---	---	---
 -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사

1	2	3	4
---	---	---	---

전혀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 가끔 읽는다 항상 읽는다

- g. 가족과 결혼에 관한 기사
1 2 3 4
 - h.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1 2 3 4
 - i. 주일 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1 2 3 4
 - j. 후기 성도의 소리 또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 경험
1 2 3 4
 - k. 사진이나 삽화가 많은 이야기
1 2 3 4
 - l. 청소년에 관한 기사
1 2 3 4
 - m. 포스터
1 2 3 4
 - n. 질의응답
1 2 3 4
 - o. 알고 있습니까?
1 2 3 4
 - p. 애독자 편지
1 2 3 4
 - q. 어린이란 (친구들)
1 2 3 4
 - r. 교회 소식
1 2 3 4
 - s. 지역 교회 소식
1 2 3 4
18. 리아호나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기사 종류 세 개를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표지에 언급된 기사들
 - 목차
 - 제일회장단 메시지
 - 현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쓴 다른 기사
 - 복음 고전 (과거 총관리 역원들이 쓴 말씀)q
 - 방문 교육 메시지
 - 외설물, 도박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
 -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사
 - 가족과 결혼에 관한 기사
 -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주일 학교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경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

- 후기 성도의 소리 또는 교회 회원들의 개인적 경험
- 사진이나 삽화가 많은 이야기
- 청소년에 관한 기사
- 포스터
- 질의응답
- 알고 있습니까?
- 애독자 편지
- 어린이란 (친구들)
- 교회 소식
- 지역 교회 소식
- 기타

19~23번까지의 질문에서 각 설명에 해당하는 답의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항상 가끔 거의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

- 19.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말씀이나 공과를 준비하는데 리아호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1 2 3 4
- 20.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의 밤에 리아호나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
1 2 3 4
- 21.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목차에 나와 있는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을 사용합니까?
1 2 3 4
- 22.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제일회장단 메시지의 끝에 나와 있는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1 2 3 4
- 23.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은 포스터, 게임, 만들기 활동과 같은 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뜯어서 사용합니까?
1 2 3 4
- 24. 리아호나를 보통 언제 받습니까?
 해당 월이 오기 전에
 해당 월의 첫째 주
 해당 월의 둘째 주
 해당 월의 둘째 주 이후
- 25. 얼마나 자주 비회원인 친구나 가족과 리아호나를 나눕니까?
 자주
 가끔
 전혀 나누지 않는다

“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하도록 주님 방법 보여 주셨네”

찬송가 189장 “가족은 영원해” 중

이태재 형제 가족 이야기,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나는 젊어서부터 진리에 대한 갈증이 컸다. 절대적인 진리, 궁극의 진리를 늘 찾아 다녔다. 하지만 여러 종교를 서성이고 밤새 책을 읽고, 여기저기 묻고 다녀도 찾을 수 없었다. 진리에 목말라 하긴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함께 누워 종종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몹시 더웠던 여름 날 두 명의 장로가 땀을 흘리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니, 진짜 시작은 선교사와 영어 회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정말로 시작이었던 건 옆집에 살던 윤석주 형제 가족이 ‘몰몬’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영어보다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상한 영어 회화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진리가 다 들어 있었다. 선교사들이 주고 간 ‘몰몬경’ 속에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펼치기만 하면 진리가 쏟아져 나왔다. 젊은 날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진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우리 부부는 침례를 결심했다. 처음 선교사와 만났던 날 이후로 3주 만이었다.

침례를 받은 후의 매일매일은 진리를 알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2005년 5월 5일, 우리 가족은 인봉을 받기 전이지만 무작정



성전으로 향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대장정이었지만 주님의 집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피곤한 줄도 몰랐다. 나는 처음 찾은 성전에서 주님께 길고도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때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막내 혜준이의 피부 질환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것이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졌다.

나는 막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기적과 같은 일은 다시 대구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났다.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주머니가 치료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혜준이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나는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흘렸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사랑스러운 아내 최혜경 자매와 믿음직한 큰딸 원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혜연이와 혜지, 복음 안에서 태어난 막내 딸 혜준이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무엇보다 기뻐했던 것은 가족이 함께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2005년 11월 12일,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드디어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에 힘쓰고 있다. 나와 아내는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감독단으로서 청년 회장단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누군가는 물을 지도 모른다. 당신이 찾았다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하며 알기 쉬운 것이었다고.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경전을 펼치면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었다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이었다고 나는 말할 것이다. ■

이 기사는 이태재 형제 가족의 간증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빛을 향해 전진하는 청소년들

오늘날 청소년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불안과 절망 앞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일찍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말한 이 시대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변함없이 빛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방향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 청남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론 신권 의무 프로그램’(이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을 수행하고, 청녀들도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며 희망을 배워가고 있다.

러분을 지탱해줄 것입니다.”

청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각 청녀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장려하며, 신성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각 청녀가 현재 자신의 가정에 기여하고 또 충실한 여성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미래의 책임에 대해 준비할 방법을 제공해 준다. 청녀들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며 일곱 가지 가치관 각각에 대해 여섯 가지씩의 가치관 경험을 완수하게 된다. 모든 것을 완수하고 감독과 접견을 하면 청녀 표창을 받는다. 청녀 표창은 증서와 메달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과 청녀 표창을 받았다. 그들의 진솔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강누리 (현 17세 고1) 전주 스테이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기록부를 완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중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는 청남들이 아론 신권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준다. 청

남들은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를 위한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의 각각에 설명된 요건들을 완수할 때마다 증서 하나씩을 받는다. 청남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증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게 된다. 이 상은 증서와 메달로 이루어져 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에 대해 청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이 요구하는 달성 요건들을 성취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간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간증은 생애를 통해 여



맨 오른쪽이 강누리 자매, 바로 그 옆이 강슬 자매. 청녀들과 함께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고 있다.

이 되고,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워야하는 시기가 오자, 교회의 형제자매님들께서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으로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니와 친구들과 함께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다 보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슬플 때 하나님에게 항상 의지하게 되었고, 교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기록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이 함께 유학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언니와 함께 한국에서 모두 완수하고 가자고 다짐하고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고, 소중한 친구도 생겼고 저의 안 좋았던 성격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수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청년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청년 회장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뜻있고 보람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전 세계의 청년들이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실행하고 완수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만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강술 (현 18세, 고2) 전주 스테이크

개인 발전 기록부는 제 삶의 리아호나와 같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서 제가 청년으로서, 교회의 한 자매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발전 기록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회장님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나하나의 경험을 꾸준히 완수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유혹에 흔들려서 스스로의 의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는 동안 가족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자매로서 갖춰야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와 주일 학교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면, 개인 발전 기록부를 통해서 제 자신의 성품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제 간증과 신앙을 높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치관 임무에 따라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힘이 들긴 했지만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 다른 사

람을 기쁘게 하고 수고를 덜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게 가장 값진 축복은 개인 발전 기록부에 속한 가치관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또한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게 교회 안에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개인 발전 기록부를 완수하기까지 저를 지켜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전 자매 (대구 스테이크)



처음 개인 발전 기록부를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청년 메달을 받고 싶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개 두개 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결심은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게을리 하다가 어느덧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인 발전 기록부를 시작할 때 청년 메달을 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에 하는 상호 향상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끝나고 보니 상호 향상 모임이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청년 메달은 그냥 목걸이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가 끝났다고 해서 저의 발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소영 (부산 스테이크)



저는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모님을 위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해 보기도 하고, 가족에게 조금 더 봉사하기 위해서 한 달간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경험들을 돌아보면 제가 과연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가 아니었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청소년 때에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복잡한 시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아주 특별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상고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기대하지 못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예슬 (청주 스테이크)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는 청년이 된 날 받았지만 그 책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몰랐고 몇 해 지나 책의 내용과 크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새로운 청년 회장단 자매님들이 개인 발전 기록에 대해 매우 강조하셨기에, 당시 고3이 될 준비를 하던 저에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시간도 부족하던 생각에 자매님들의 권고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전 기록부를 집에 놓고 오기도 했고 기록하겠다는 말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청년회 시간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는 예쁜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노트가 아니라 직접 레이스를 붙여서 묶을 수 있도록 만든 노트였습니다. “자매님, 이게 무슨 노트예요?” “이거 네 일지야.” “일지요?” “응, 너 개인 발전 기록부 노트 따로 없잖아. 앞으로 여기에 기록하도록 하자.” 기존에 있는 노트보다 큰 크기로 바뀌어서 겹부터 났지만 마지막 1년 남은 제 청년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는 가치 없었던 것이 막상 의미를 부여하고 제 일상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소중해졌고, 잘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3이 되고 첫 안식일에 저는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과 안식일의 모든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철저히 하고 예외 없다고 소문난 담임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주말 지수를 빠지는 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가지고 예상외로 아주 쉽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할 때 어

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난 후 저는 회장단 자매님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5년 동안 밀린 것들을 새로 기록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새로 활동하고 채워나가며 여성으로서의 훌륭한 성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마치고 나서 노트를 훑어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이 노트가 저에겐 청년 시절 동안 있었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제 소망을 잊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특별했고 기뻐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청년 시절을 마치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 일지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계기로 삼아 더욱 훌륭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철없는 저에게 멋진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지금까지의 청년회 회장단과 임마, 아빠, 그리고 감독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차요나 형제(대구 스테이크)



제가 개인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론 신권 달성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조금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소심했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고, 또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던 것이 바로 달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달성 프로그램의 완수를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보다도 저에게 있어서 달성 프로그램은 교회에서의 삶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달성 프로그램은 상을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성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발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신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이 교회의 모범을 보고 자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복음이 완전함을 간증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며 반드시 완수해야하는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모세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합니다. 저는 달성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길에 한 발자국 다가섰다고 간증드립니다. ■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 회장 서희철 형제



2007년 1월부터 한국 선교사 훈련원(KMTC)의 새로운 회장으로 서희철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서희철 회장은 서울 영동 스테이크 소속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아내인 정경순 자매와 결혼 후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교회 교육 기구 대표 서리, 스테이크 회장 및 보좌, 고등 평의원, 성전 의식 봉사자, 그리고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서울 동 중교 교육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부름을 시작한지 2개월째를 보내고 있는 서희철 회장을 만나고 왔다. 매사에 열정적이라는 주변의 말처럼 서 회장은 벌써 눈곱새 없이 바쁘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뻐합니다.” MTC 회장으로 부름 받은 소감을 묻자 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그러고는 곧 진지한 자세로 말을 이어갔다.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꽃이자 영웅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라고 할까요?” 서 회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란 말에 힘을 주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들려줬다. “MTC 교사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모토를 “열심히 찾고 영으로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자.”로 정했습니다. MTC의 가장 기본은 선교사 훈련이니 만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숙달하고 임지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생각입니다. 또한 MTC 자원을 활용해서 워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귀환 선교사를 재훈련 시키는 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MTC는 가장 영적인 곳이어야 되고 또한 가장 활동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서희철 회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짧고도 간결한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복음 교리와 원리의 핵심인 주님의 대속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구원을 돕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 복지부의 메시지

지역 복지부는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영적인 복지’(우리가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와 ‘현세적인 복지’(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자립하는 것)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줍니다. 이 난을 활용하여 우리는 영감에 찬 메시지와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과 자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 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지의 원리는 “성전 의식을 포함한 구원을 위한 의식을 받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주 성찬을 취하는”(*교회 지침서, 제2권, 249쪽*) 것입니다.

신앙에 충실함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와 영생을 얻도록 도와 주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존중할 때, 그분은 우리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금판에서 몰몬경을 번역할 때, 구원의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하여 기도하여 주께 물어 보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침례 요한이 “빛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으며, 마침내 성전 의식이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현재 지상에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3조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의식을 받고 의식에 순종하는 것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교리와 성약 130:21)입니다. ■



지역 소식 기자 소개

김민정 기자 <마산 스테이크>

1. 부족하지만 항상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2.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부지런하겠습니다.
3. 이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주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사랑합니다.

김정민 형제 <부산 서 지방부>

1. 부름 중에 기자라는 부름은 부담이 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누구나 지역 소식을 궁금해 하며, 리아호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3.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임을 볼 때 더욱 더 참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기자 <제주 지방부>

1. 즐겁게 스스로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2.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잘 하였습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네요.
3. 리아호나에 자신의 이야기나 글이 실린 것을 보면서 삶의 활력소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저도 행복해집니다.

나선경 기자 <안양 스테이크>

1. 우리 스테이크 사람들의 삶의 요모조모를 같이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설레었고, 특별한 부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 후기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3. 리아호나는 제 삶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리아호나 기자의 부름을 통해 회원들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아호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대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민병숙 기자 <청주 스테이크>

1. 뿌듯함과 기쁨 보다는 부담감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내가 수행할 수 있음이 내심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2.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마

2007년 3월 3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감동적인 소식들을 전하는 지역 소식 기자들을 소개한다.

질문1: 지역 소식 기자로 부름 받고 난 후의 소감. 질문2: 지역 소식 기자로서 앞으로 포부. 질문3: 부름에 대한 간증

곽채림 기자 <서울 스테이크>

1. 열심히 스테이크 소식들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 기자로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기자가 됐으면 합니다.
3. 취재를 위해 모든 모임을 참석하다보니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자 부름을 통해서 교회에 더 충실한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음 속 이야기와 그들이 나누고픈 것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3. 특별히 내가 지역 소식 기자 부름을 통하여 조금 더 겸손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나나 기자 <전주 스테이크>

1. 솔직히 부담이 되지만 훈련 모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지역의 여러 소식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3. 제가 이러한 부름을 통해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숙희 기자 <서울 북 스테이크>

1. 이 부름을 맡게 되면 제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모임을 준비하는 분들의 노고와 사랑을 최대한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많은 회원들이 그 기사를 접한 후, 간증과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우리는 부름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큰 간증을 쌓게 된다는 걸 알고, 부름에 큰 감사를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주 기자 <부산 스테이크>

1. 특별한 부름을 사랑하고, 더욱 부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2. 한 줄의 짧은 글, 한 장의 작은 사진만으로도 읽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함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나겠습니다.
3. 리아호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련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서울 동 스테이크>

1.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부름을 받을 당시 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부름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스테이크 회장의 격려에 힘을 얻어 기쁘게 부름을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 항상 부지런하게 마감 시간에 늦지 않게 기사를 꼭 써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3. 내가 쓴 기사를 보고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다는 한 자매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 이후에 지역 소식 기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책임과 축복을 가진 중요한 부름이라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이진희 자매 <서울 영동 스테이크>

1. 3월호에 제가 쓴 기사와 사진이 실렸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 영동 스테이크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활동하겠습니다.
3. 저를 통해 저희 영동 스테이크의 좋은 소식들이 리아호나에 계속되어 실리기 바랍니다.

이효선 자매 <대전 스테이크>

1. 매달 읽어 보기만 했던 리아호나를 이제는 제가 쓴 글로 지역의 소식을 담을 수 있는 역할을 맡아 큰 책임을 느낍니다.
2. 지역의 밝은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의 언어로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3. 훌륭한 말씀을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운 회원들을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춘영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1. 기자 부름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름입니다.
2.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저에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특별히 기자 부름을 통해서 되도록 보되지 않고 더 발전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경희 기자 <대구 스테이크>

1. 자주 기사를 올리면 지역회원들이 더 뿌듯해하고 행복해 하겠구나하는 사명감이 듭니다.
2.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보는 리아호나의 한 부분에 나의 기사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과 함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3.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100% 그 부름에 대한 자질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름은 우리가 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조연화 기자 <순천 지방부>

1. 부름을 받기 전에는 리아호나의 지역 소식들이 어떻게 올라오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방부 공보 쪽의 부름을 받게 되면서 이 낯선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허둥대던 중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여를 병원에서 보내고 퇴원해보니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름이 하나 있었고, 수행할 여력이 있는 부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리아호나 기자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낸 회원의 간증이 리아호나에 실렸습니다. 그 리아호나를 받아든 순간 참 기쁘고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충실히 이 부름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3.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기자 <인천 스테이크>

1. 부담이 되었지만 나의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2. 글 쓰는 방법을 배워서 글 솜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3. 개종을 하여 교회의 활동 회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리아호나라고 말 할 정도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최진 기자 <광주 스테이크>

1. 우리 스테이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2. 앞으로 신속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성신의 동반으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3. 다른 많은 부름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지만, 이 기자라는 부름은 이 복음의 참됨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



지역 단신

주: 지역 단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www.lds.or.kr의 '회원과 방문자를 위한 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2007년 2월 10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우림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2003년부터 후기 성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올해 1학기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 이 땅의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인 장학금들은 19명의 대학생과 1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대전 스테이크 <오순임 기자>

초등학교 캠프 2007년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스테이크 센터에서 문명규 회장의 감리로 초등학교 캠프가 열렸다.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신입 독신 환영회 3월 1일 통영 와드에서 마산 스테이크 신입 독신 환영회 3월 1일 통영 와드에서 마산

스테이크 신입 독신 환영 모임을 가졌다.

부산 스테이크 <이인주 기자>

스테이크 대회 전반기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이순철 회장의 감리 하에 열렸다.

부산 서 지방부 <김정민 기자>

지방부 대회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2007년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 하에 지방부 대회를 가졌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스테이크 대회 전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2월 10(토요 총회)과 11일(일요 총회) 양일간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서울 강서 스테이크 <정준영 기자>

스테이크 대회 2006년 2월 24일과 25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의 감리 하에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강서 스테이크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전임 회장인 길정권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그리고 회장단으로 16년 동안 봉사 했었다. 강서 스테이크의 새로운 회장으로는 이광준 형제, 제1보좌로 이인호 형제, 제2보좌로 이상래 형

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서울 북 스테이크 <이숙희 기자>

LDS 백송 음악회 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제2회 LDS 백송 음악회가 일산 와드 예배당에서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이나나 기자>

합동 체육 대회 추웠던 겨울이 다가고 봄기운이 물씬 느껴졌던 2007년 2월 24일, 전주에서는 전주, 광주, 대전 스테이크가 모여 합동 체육대회를 가졌다.

등반 대회 3월 1일,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3월의 첫 날, 전주 스테이크는 이철오 회장의 감리 하에 고산 휴양림에 있는 '동상 대아리 식물원'에서 등반 대회를 가졌다.

종교 교육원 졸업식 <형상일 기자>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 3월 3일, 학창 시절의 졸업과는 다른 졸업식이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서울 서와 동, 그리고 중부 종교 교육원에서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지부 회장: 정병일(전임: 손정규)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이광준(전임: 길정권)
제1보좌: 이인호(전임: 이호상)
제2보좌: 이상래(전임: 이인호)
- 홍성 지방부**
지방부 회장: 최성돈(전임: 정석환)
제1보좌: 강지훈(전임: 김용갑)
제2보좌: 윤종순(전임: 최성돈)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김종서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
뉴욕 남 선교부